metro®

메트로 2014년 5월 22일 목요일 제2979호 www.metroseoul.co.kr

개성공단 다녀온 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2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방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주가 원화 채권

트리플 강세…경제 훈풍 분다

코스피 시가 총액 한달 반 새 20조원 불어나
원화 1020원선 위협…채권값도 이례적 상승

한국경제에 파란 신호등이 켜졌다.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 미국 경기의 회복세, 중국 성장정책 추진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원화·채권이 트리플 악셀 점프를 뛰고 있다. '코스피지수 2400' 돌파라는 한국 증시의 오랜 숙원도 이번 기회에 풀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9일 2015.14로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다. 펀드 환매 물량 부담에 이날엔 2.93포인트(0.15%) 내린 2008.33으로 엿새 만에 다시 2000선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차츰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 예전처럼 쉽사리 1990선으로 밀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강세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그룹주가 호조를 보이고 여기에 장이 연동되는 추세를 보인다"며 "선물시장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단기적인 장세는 좋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상승에 힘입어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1분기 말 1182조4880억원에서 이날 1203조9260억원으로 1개월 보름여 만에 21조4380억원 증가했다.

원화 가치도 가파르게 치솟았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한 하락 국면(원화 가치 강세)에 접어들었다. 올 들어 원화 가치는 3% 넘게 올라 지난 7일에는 5년 9개월 만의 최저 수준인 1020원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특히 1분기 말(1064.7원) 대비 절상폭은 4.1%로 신흥국 통화 중에서 가장 높았다.

주식과 외환시장의 더블 악셀은 경기회복기에 곧잘 나타나지만 이번엔 채권시장까지 강세 행렬에 동참했다.

주가가 오르는데도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채권금리 하락)은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 주식 하락 장세에서 채권 강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주가와 채권이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동조화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국면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총괄팀장은 "국내 경기의 회복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변곡점에서 주가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동조화는 오는 9~10월쯤 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 세계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 연방준비은행장들은 연달아 오는 10월이나 늦어도 12월에 양적완화를 마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다.

증권사들은 잇따라 올해 주식시장을 밝게 내다본 전망치를 내놨다. 수년간 박스권을 뚫고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우리투자증권·대신증권 등 증권사 5곳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2100~2400으로 제시했다.

증권사별 예상 고점은 대신증권 2400, 신한금융투자·우리투자증권 2200, 한국투자증권 2150, 삼성증권 2100 등의 순이다.

증권사들은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와 이익 증가, 미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중국의 성장정책 추진 등을 기대 요인으로 꼽았다.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미 양적완화 종료 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코스피는 5% 안팎의 조정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오는 4분기부터는 기업 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세계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 반등 장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울산 1억 연봉자 7%
서울 2배, 제주의 7배

울산에 사는 직장인 약 7%의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시도별 총급여 1억원 이상 근로자 현황'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총급여가 1억원 이상인 울산 근로자는 3만250명이다. 울산 전체 임금근로자의 6.88%다. 울산의 '억대 연봉자' 비율은 2위 서울(3.91%)의 2배에 가깝고, 꼴찌인 제주(0.89%)의 7배가 넘는 수준이다.

울산과 서울, 경기(2.46%)의 억대 연봉자 비율은 16개 시도 평균(2.35%)보다 높다. 반면 제주, 충북, 강원 지역은 총급여가 1억원 이상인 임금근로자가 1%를 밑돌았다. 서울·경기는 인구가 많아 억대 연봉자 수는 10만명이 넘었지만 비율로는 울산에 못 미쳤다.

이노근 의원은 "지나친 지역간 경제 격차는 우리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방통위 또 파행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지연되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등과 만나 세월호 현안질의를 위한 개회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시작

세월호 참사 최대 변수…여야, 전면적 '인적 쇄신' 요구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22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흐트러진 민심은 여전히 냉랭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와 함께 이번 선거의 판도를 결정지을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공약은 후보들의 필수 공약이 됐다.

새누리당은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면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전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식 선거전 동안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 후임 총리를 비롯해 내각과 청와대에 걸친 이른바 '인적쇄신'이 꼽힌다.

전면적인 인적쇄신은 야당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나서더라도 그 시기와 폭, 방향 등에 따라 민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내놓은 국가안전처 신설이나 진상조사위원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검 도입 등 각종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되느냐도 유권자들의 막바지 선택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투표 무관심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른바 '심판론' 쪽으로 연결되면서 젊은층과 야당 성향 지지자들을 대거 투표장으로 이끌지 주목된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층수 전쟁, 경제논리 앞서 안전을

기자 수첩

박 선 옥 <경제산업부 기자>

바야흐로 층수 전쟁이 한창이다. 발표되는 각종 개발계획에는 어김없이 초고층 랜드마크빌딩이 포함되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도 높이 경쟁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리모델링을 할 때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법규도 완화됐다.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건물 층수에 민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높게 쌓아올리는 게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경제논리로 층수에 집착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최고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만 하더라도 안전방재 전문기관 점검 결과 수백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인 이유로 애초 예정했던 5월 저층부분 조기개장을 강행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를 일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마찬가지다. 업계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기존 아파트에서 층수를 높이더라도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경제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건축비를 아끼는 순간 얘기가 달라진다.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집·직장·학교 등을 짓는 건설업은 특히 사람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건설업계 스스로 경제논리보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분주한 선관위 6·4 지방선거를 14일 앞둔 21일 오후 서울 와룡동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접수된 후보자 선거 벽보를 검수하고 있다. 공식 선거전은 22일부터 시작됐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자금지원 음식·도소매업 확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특별자금 지원이 음식·도소매업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기존 여행·운송·숙박업종에 한정된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음식업과 도소매업으로 확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 공연예술계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산시와 진도군 소재 요식업체에 대해선 신·기보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김민준기자 mjkim@

"대통령, 세월호 첫 보고 오전 10시 전후"

정 총리 국회 답변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오전 10시 전후"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1일 오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게 언제인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보고 경과는 모르지만 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며 "10시 전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일을 일일이 제가 보고 받지 않아 정확한 시간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월호가 사고 당일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 진입해 무리한 변침을 해 최초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오전 8시48분이고, 안전행정부가 청와대에 문자메시지로 세월호 참사를 알린 시간은 오전 9시31분으로 각각 알려져 있다.

정 총리는 청와대가 최초 대책회의를 한 시점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 내용은 잘 모른다"며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을 총리가 어떻게 일일이 조사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가 난 것과 청와대를 연결시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확한 시간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은 통상 사고가 나면 계속 챙기고 보고 받는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이번 주 심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일명 '김영란법'을 이번주 본격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21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5주기 내일 추도식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된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염수정 추기경 개성공단 첫 방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21일 개성공단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염 추기경은 이날 오전 6시20분께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을 떠나 동료 방북단과 함께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로 향했다.

염 추기경을 비롯해 신부 6명과 서울대교구 관계자 2명 등 8명으로 꾸려진 방북단은 레저용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오전 7시20분께 통일대교를 건너 남북출입사무소 쪽으로 들어갔다.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오늘 방북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에서 일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는 사목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염 추기경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둘러보고 남한 기업의 신자들을 위로하며 간단한 기도 시간을 가졌다. /조현정기자

금수원 수색, 유병언 체포 실패

검찰, '비밀별장' CCTV 저장장치·8박스 분량 압수물 확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해 8시간 동안 수색했다.

하지만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유씨의 구인영장과 장남 대균(44)씨의 체포영장에 더해 법원으로부터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이날 정오께 집행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관 70여 명이 수색작업을 하는 동안 외곽에는 경찰 500여 명이 배치돼 도주로를 차단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 경찰 700여 명도 대기했다.

검찰은 유씨가 사진작업을 했던 스튜디오와 강당, 수련원 등 금수원 내부에서 8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또 유씨가 한때 머물렀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금수원 인근 호미영농조합의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부자가 이미 서울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과 경찰 검거팀 인력을 확대했다.

한편 검·경찰의 강제진압에 대비해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채 대치해오던 구원파는 이날 오전 금수원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금수원 들어가는 검찰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한 검찰 체포조가 탄 차량이 21일 낮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금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졸자 생산직 채용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이 생산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격을 고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제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 A사의 생산직 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학력을 허위로 밝혔다는 이유로 사직하게 된 B(37)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사에 향후 생산직 모집 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교육·훈련이나 기술자격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합리적인 지원자격 요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대학을 나온 사실을 숨기고 A사의 지방 공장 생산직(정규직) 채용 시험에 합격해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다음 달 최종학력을 고졸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윤다혜기자 ydh@

"비싼 비급여 수술에 호텔숙박 제공 정당"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병원이 호텔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21일 숙박 제공 광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발이식수술 비용은 호텔 숙박비보다 훨씬 비싼 것이 일반적이므로 숙박 서비스의 제공은 단순히 수술 비용을 할인해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숙박 제공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 초 A씨의 병원 홈페이지 관리자는 "지방에서 내원하는 환자를 위해 모발이식수술 당일 호텔·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었고 검찰은 이 광고가 의료법상 불법 알선·유인 행위라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윤다혜기자

송국빈 '다판다' 대표 151억 횡령 기소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대표의 혐의 액수는 횡령 24억원, 배임 127억원 등 총 151억원이다. 우선 유씨,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공모해 형식상 고문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유씨에게 매달 1500만원씩 총 5억9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표, 유씨의 장남 대균씨와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다판다 매출액의 0.75%, 총 18억8000만원 가량을 대균씨에게 지급했다.

2007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대균씨와 유씨의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매달 700만원, 총 5억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에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000만원, 총 48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유씨의 사진 14점을 3억2000만원(점당 2200만원 상당)에 매입한 정황도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민간잠수사 5명 추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수중 수색을 위한 민간 잠수사 5명이 추가 투입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1일 오전 "신규 충원된 민간 잠수사 5명에 대해 지난 20일 신체검사를 마치고 DS 바지선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미래호 바지선과 민간잠수사 13명이 지난 15일 철수한 이후 대체 투입된 DS 바지선에는 현재 총 16명의 잠수사가 수중수색을 하고 있으며 철수한 팀이 맡았던 4층 선미 다인실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다.

대책본부는 이날 민·관·군 합동구조팀 123명을 대기시켜 3층 중앙부, 4층 중앙 좌측 통로와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객실을 수색했다.

/윤다혜기자

21일 오전 11시께 전북 김제시 진봉면 진봉초등학교 인근의 논에 떨어진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의 보조 연료탱크. /연합뉴스

美전투기 연료탱크 논에 떨어져 '아찔'

21일 오전 11시께 전북 김제시 진봉면 진봉초등학교 인근에 떨어진 기름통 추정 물체 2개가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의 보조 연료탱크 2개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료탱크 2개가 진봉초등학교에서 200m 거리의 논에 떨어져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이 보조 연료탱크는 성인 남성보다 큰 2m 크기로 전투기 날개 밑 쪽에 장착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전투기 운행 중 응급상황이 생겨 매뉴얼에 따라 보조 연료탱크를 떨어뜨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보상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마트 등 영업제한 2시간 연장

서울시 금천구는 오는 25일부터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규제를 받는 금천구 내 업체는 대형마트 3곳과 SSM 4곳으로 총 7개 업체다.

강남, '자전거 정비교실' 운영

서울시 강남구는 자전거 이용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정비교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상반기 정비교실은 전날 영동5교 양재천변을 시작으로 22일 대치근린공원, 26일 청담가로공원, 28일 영동3교 양재천변에서 진행된다.

다자녀 돌사진 무료 촬영

서울시 용산구는 비용 때문에 돌사진 촬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다자녀 가구를 위해 돌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10년 8월 처음 시작된 행사로 지난해까지 142명의 아기들에게 돌사진을 선물했다. 올해는 52명을 선정했다.

개포1단지·둔촌주공 재건축

건축위 심의 통과… 6662세대·1만1106세대 들어설 듯

서울시는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개포1단지와 강동구 둔촌동 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개포동 660-3번지 일대 개포1단지는 아파트 6662세대와 공원이 들어선다. 사업 대상지의 면적은 30만7566㎡(약 9만3000평)이며 획지는 3개로 분할됐다.

1·2번 획지는 건폐율 19.34%, 용적률 249.99%를 적용해 지하 4층, 지상 35층, 연면적 114만701.13㎡로 건축되며 아파트 6662세대가 들어선다. 조합원과 일반분양 물량이 6267세대, 재건축소형(임대) 주택이 395세대다.

면적별로는 42㎡형 709세대, 49㎡형 4세대, 59㎡형 1286세대, 84㎡형 2486세대, 96㎡형 718세대, 109㎡형 981세대, 124㎡형 277세대, 156㎡형 99세대, 168㎡형 102세대 등이다.

3번 획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폐율 46.30%, 용적률 229.75%를 적용해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6715.00㎡로 건축된다. 2015년 6월 착공을 시작해 2018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대상지 면적은 46만3106.6㎡(약 14만평)이다. 건폐율 19.11%, 용적률 273.88%가 적용돼 지하 4층, 지상 35층, 연면적 219만 3677.32㎡로 재건축되고 아파트 1만1106세대가 들어선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 물량은 1만60세대, 재건축 소형(임대)주택은 1046세대다.

크기별로는 29㎡형 236세대, 39㎡형 1073세대, 49㎡형 1041세대, 59㎡형 1160세대, 84㎡형 4214세대, 95㎡형 542세대, 109㎡형 2636세대, 134㎡형 204세대 등이다. 2016년 7월 착공해 2019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형 아파트 세대를 늘려 서민과 2~3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더위 피해 고궁으로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오후 서울 와룡동 창경궁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나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제대 의대 교수 기소

'장례식장 운영권' 10억 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의사 백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씨는 2007년 1월 고모씨에게 "인제대 부속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며 20억원을 요구한 뒤 같은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제대 의대 교수인 백씨는 장례식장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본인이 "인제학원 이사장의 장남"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지난 3월 인제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난 백낙환 인제대 명예총장의 아들이다.

/윤다혜기자 ydh@

"바람개비 직접 만들었어요" 21일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관들마실 인근 공원에서 열린 '나눔+배움사랑방' 프로그램 참가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바람개비를 들고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제공

동성결혼신고 불수리 소송

김조광수-김승환 불복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수리 통보를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49)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0)씨가 불복 소송을 한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김조광수·김승환 동성부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에 대해 이날 중으로 서부지법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며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윤다혜기자 ydh@

'못믿을' 백화점 내 음식점

경기지역 식품위생법 위반 28곳 적발

경기도내 대형 백화점에 입주한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도내 18개 대형 백화점 내 음식점 83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백화점 28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조리장 무단 확장 17곳을 가장 많았다.뒤이어 원산지 거짓표시 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곳 순이었다.

용인 A백화점 내 음식점 10곳은 식당 안 조리장과 별도로 다른 밀폐된 공간에 조리장을 추가로 설치해 단속에 걸렸다. 수원 B백화점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5~7일 지난 어묵을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원의 다른 C백화점 내 초밥 전문점은 수산물 일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들통났다.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대해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정우기자 cyclone@

공룡전시회 관람객 외면

중앙과학관, 콘텐츠 부실·품목도 빈약

국립중앙과학관이 주최하는 공룡 전시회가 부실한 콘텐츠로 관람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중앙과학관은 지난달 8일부터 '지구의 역사를 품은, 공룡 대전' 방문객 수가 1만8790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하루평균 507명 정도로 평일 100여명, 주말 1000여명 수준이다.

관람객들은 공룡 대전을 공동 주최하는 태안 안면도 쥬라기 박물관에 비해 이용료가 높고 전시품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전시관은 안면도 쥬라기 박물관 연면적(9160㎡, 지하 1~지상 3층)의 6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 전체 500여점의 전시품 가운데 주요 공룡 관련 전시품은 110여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윤다혜기자

서울여대, 개교 53주년 기념

서울여자대학교는 20일 교내 바롬인성교육관 국제회의실에서 제53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의 기념사, 최태협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천노회장의 축사로 진행됐으며, 교원과 직원들에게 10년, 20년, 30년 근속표창과 공로표창이 수여됐다.

'우리들의 작은 가게' 시상

한성대학교는 최근 교내에서 '2014 한성 우리들의 작은 가게' 발표 평가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와플'로 창업해 최고의 매출을 올린 '몬스터와플' 팀에게 상금 50만원과 함께 돌아갔다.

또 이날 학생들은 창업 준비 과정과 결과에 대해 팀 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송대-생명문화, 협약 체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생명문화와 21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방송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문화가 진행하는 생명존중 인식확산, 자살예방활동, 생명운동 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美·EU "태국 쿠데타 아닐 것"

"약속 지켜라" 한 목소리…한국 교민 장사 안돼 울상

군부의 계엄령 선포로 태국의 정정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군부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공언한 것을 믿는다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군부가 일시적인 조치라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은 태국 군부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면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태국 군부가 '쿠데타가 아닌 계엄령'이라고 한 것이 사실이기를 기대한다"며 "민주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과도정부가 제시한 조기 선거 일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대변인은 "태국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 EU는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해 왔고 민주적인 원칙을 존중한다"며 "조기 선거를 언제 실시할지 명확한 일정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태국 군부는 '평화와 안정 유지'를 명목으로 20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과도총리 대행은 재총선일을 8월 3일로 정해 선거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방콕 시내 한인 상가들이 울상이다.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와 식당 등은 지난 3월 반정부 시위대가 방콕 시내 점거 시위를 중단, 매출 부진에서 다소 벗어났다. 하지만 이달 들어 잉락 친나왓 전 총리 해임으로 정국 위기가 깊어지면서 '제2의 불황'을 겪고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1940년대 수영장 '명품' 변신

metro Paris

고급호텔 이미지

La piscine Molitor s'offre un bain de luxe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비키니가 등장한 1940년대에 만들어진 수영장이 다시 문을 연다.

파리 16구에 위치한 '몰리토' 수영장은 파리 시민들이 즐겨찾는 수영장이었다. 수영장 주위를 둘러싸고 좁은 통로가 배치된 이색 디자인이 눈에띄는 이곳은 위생 문제로 1989년 문을 닫아야 했다.

25년 뒤인 올해 몰리토는 2년간의 보수공사를 거쳐 수영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건물 구조는 예전 모습 그대로다. 보수공사를 맡은 담당자 벵상 메자르는 "1929년 이 수영장을 설계했던 루시앙 폴레가 구상했던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몰리토 수영장은 예전의 대중적 이미지를 벗어나 고급 호텔 수영장으로 이미지 변화를 시도했다. 스파와 고급 레스토랑이 수영장 주변에 배치되며 하루 숙박비로 215 유로(약 30만원)를 사용하는 방문객에 한해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다.

/세리즈 수드리 르 뒤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가위 든 독일 총리… 왜?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쇠네펠트 공항에서 개최된 '2014 국제 에어쇼' 개막식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초대형 모형 가위로 테이프를 자르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열대우림 보호하려면 1조 내라"

민주콩고 장관 국제사회에 노골적 요구

"열대 우림을 보호하고 싶으면 10억 달러(약 1조250억원)를 내라."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이우림지역 보호를 명목으로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바본 음푸투 엘리마 민주콩고 환경장관은 "우림지역이 우리보다 넓지 않은 인도네시아는 10억 달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2010년 노르웨이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삼림파괴를 중단하는 대신 10억 달러를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민주콩고처럼 넓은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며 "여러 국가들이 공익을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마 장관은 민주콩고 수도 킨샤샤 주변 1200만 ha 면적의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영국을 찾았다. 민주콩고는 아프리카 전체 열대 우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2008.33 (−2.93)

코스닥 545.59 (+2.63)

금리(국고채 3년) 2.84 (−0.01)

환율(원·달러) 1025.50 (+0.50)

뉴스&뉴스

민소매 티 입으세요 이른 더위가 찾아온 21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민소매 티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동양사태 피해자 집단소송

● 동양그룹의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이 다음달 초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 21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소송 참여자들로부터 소송위임장과 피해상품 목록, 잔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았다. 예비 등록 결과 2300여명이 소송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300여명이 서류를 냈다. /김민지기자 minji@

6월 전국 입주물량 53%↑

● 오는 6월 올해 중 가장 많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월(2만3511가구) 대비 53%(1만 2497가구) 증가한 전국 3만 6008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물량만 1만8538가구다.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탁기자 kimdt@

연금복권520 제151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5조	496077
		4조	649920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198847
4등	100만원	각조	85226
5등	2만원	각조	137
6등	2000원	각조	86, 60
7등	1000원	각조	5,9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인사담당자 82% "나쁜 습관 지원자 탈락"

시선을 회피하는 등의 사소한 버릇이 합격의 꿈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262명에게 지원자의 무의식적인 버릇 때문에 감점을 준 적 있는지를 물은 결과, 66%가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들 중 81.5%는 지원자의 버릇 때문에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81.8%)이 '중소기업'(65.8%)보다 감점·불이익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점·불이익을 주는 버릇으로는 '밑을 보고 이야기 하는 등 시선 회피'(59%,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말끝을 흐리거나 늘려 말하기'(56.1%), '몸을 비틀거나 다리 떨기'(46.2%), '구부정한 자세로 앉기'(28.9%), '다리를 쩍 벌리거나 꼬기'(27.2%),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기'(27.2%), '손톱이나 입술 뜯고 깨물기'(23.7%), '아, 에… 등 불필요한 추임새'(18.5%), '볼 부풀리거나 입 씰룩거리기'(14.5%), '머리를 만지는 등 잦은 손동작'(13.9%)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kmlee@

이통3사 영업정지가 남긴 것…

알뜰폰 웃고 단말기값 내리고

20일을 기해 68일간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불법 보조금'에서 비롯된 이번 사상 최장기간의 영업정지 일정은 업계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최대 수혜자는 '알뜰폰'

21일 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68일간 이통3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알뜰폰 가입자는 43만6880명 증가했다. 반면 SK텔레콤은 29만3246명, KT는 4882명, LG유플러스는 2418명 각각 감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동안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에게 불법 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했으며, 중저가폰·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영업재개와 함께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자 알뜰폰 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이통3사 영업정지로 인해) 다소 반사이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통신시장이 얼어붙어 예상보다 큰 성장은 나타내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지금부터가 올해 알뜰폰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 윤곽을 내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꿎은 제조사·판매점 피해 가중

이번 영업정지 기간 결정적 타격을 입은 곳은 이통3사가 아닌 제조사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단말기 판매는 일평균 40% 감소했다. 이 같은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제조사와 유통점만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은 여느 제조사보다 피해가 컸다. 내수 시장에 전념한 팬택은 당초 1~2월 단말기 판매량 확대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보이는 듯 했으나 이통3사 영업정지로 인해 3월부터 재차 어려움에 빠졌다.

업계도 이번 영업정지의 최대 피해자는 팬택과 유통점이라고 말한다. 팬택뿐 아니라 유통점 역시 영업정지의 직격탄을 맞았다.

순차적 영업정지 일정에 따라 일정기간 가입자 유치가 불가능 했던 영세 유통점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문제는 미래부에서도 인정했다. 미래부 측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업정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신의 물방울'은 이런 맛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제13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MAAF)가 주최하고 소펙사 코리아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200여명의 현직 소믈리에와 와인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뉴시스

고배당 업종에 주목하라

SK텔레콤·지역난방공사 등

글로벌 채권금리 하락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내 증시에서는 통신, 유틸리티 등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이 떠올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프랑스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이 배당 수익이 높은 글로벌 주식을 모아 만든 글로벌퀄리티인컴인덱스의 배당수익률은 5%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MSCI가 집계한 글로벌 시장의 배당수익률이 영국 3.5%, 프랑스 3.2%, 미국 1.9% 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금리가 낮게 지속되면 배당주에 긍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통신, 유틸리티 등의 배당주 매력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 업종에서는 SK텔레콤의 배당 메리트가 높다. 지난해 SK텔레콤의 주당 배당금은 9400원으로 4.2%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예상치는 4.6%이다.

KT의 경우 그동안 주당 2000원선이던 배당 수준이 대규모 명예퇴직금 마련 등의 이유로 지난해 800원까지 대폭 낮아졌다. 올해는 이보다 더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주당 150원의 배당 수준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틸리티 업종에선 지역난방공사가 견조하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난방공사의 배당수익률은 3.4%였으며 올해 예상은 3.3%로 조사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올해엔 2.7%의 배당수익률이 예상된다. 한전KPS의 전망치도 2.7%이다.

/김현정기자 hjkim1@

구본무 회장 경쟁력 점검

스마트폰 등 디자인 살펴봐

구본무 LG 회장이 21일 금천구 소재 LG전자 가산 R&D캠퍼스에서 향후 출시될 LG전자 신제품의 디자인 등 경쟁력을 점검했다. 구 회장 등 경영진은 이달 말 출시 예정인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LG G3'를 비롯해 'LG G워치' '2015년형 울트라 HD TV 및 올레드 TV' 등 모바일과 TV, 생활가전 분야에서 올해와 내년에 출시될 60여개 주요 신제품과 부품 등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는 LG전자 구본준 부회장, 안승권 최고기술책임자(CTO), 하현회 HE사업본부장, 박종석 MC사업본부장, 조성진 HA사업본부장, 노환용 AE사업본부장 등을 비롯해 제품별 사업 책임자와 디자인연구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안승권 사장은 LG전자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 사장은 "시장선도 상품 창출을 위해 디자인이 고객의 감성과 총체적 사용경험을 만족시키고 제품 트렌드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우선 프리미엄 디자인을 일관되게 추구하기 위한 디자인 중심의 신제품 개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디자이너와 현장 엔지니어간 협업을 강화해 디자인안이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조기에 검증한다.

/김태균기자 ksgit@

☎118 해킹, 바이러스, 불법스팸, 개인정보침해 등 인터넷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 이용 중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는 전국 무료 전화번호입니다.

118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스팸문자를 받으셨나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셨나요? 해킹 당하셨나요?
해킹 • 바이러스 • 불법스팸 • 개인정보침해 등 인터넷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 인터넷 이용 중 궁금한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이버 도우미 ☎118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포럼 MOU 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포럼단 발대식 행사에서 포럼단 유망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참가기관 대표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KB 전산 교체 집안싸움

회장-은행장 평행선… 지휘체계 흔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이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연초에 불거진 잇단 금융사고의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갈등까지 드러나 경영 지휘체계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거래시스템 교체를 두고 시작됐다. 국민은행은 최근 이사회에서 IBM 메인프레임 전산 시스템을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해 이건호 은행장과 정병기 감사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병기 감사는 문제 소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특검을 요청하면서 내부 갈등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번 갈등과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임 회장은 "이번 건은 은행과 이사회 간의 문제이지 회장하고 행장 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은행장이 현명하게 이사회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산시스템 변경에 대해서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결정을 위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텐데 그 결과를 갖고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건호 행장은 주 전산시스템 교체가 미뤄지더라도 내부감사 결과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행장은 "지금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감독당국에 보고서가 올라가면 문제가 제기될 만한 부분이 발견돼 이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KB금융 내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국민은행에 이어 KB금융지주에 대한 특별 검사에도 돌입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이사회 갈등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은행검사국 인력을 투입해 국민은행에 대한 특검에 들어간 데 이어 20일부터는 KB금융지주에 대한 특검도 개시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전월세 수도권 0.4%↓ 지방 1.3%↑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올해 4월 전월세 거래 동향과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2만9903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0.2% 증가했지만 지난 달보다는 8.7%가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의 경우 전세 거래는 감소하는 반면 월세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보다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만7463건이 거래되어 지난해 동월대비 0.4% 감소했고 지방은 4만2440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1.3%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해 동월대비 1.8% 감소, 강남3구는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동월대비 1.2% 감소(5만7227건) 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2% 증가(7만2676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주택은 전세 60.0%(7만7951건), 월세 40.0%(5만1952건), 아파트는 전세 66.9%(3만8259건), 월세 33.1%(1만8968건)로 나타났다. /김두탁기자 kimdt@

외환·하나SK카드 연내 통합

7월 독립법인 출범… 3년간 고용보장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가 통합 초읽기에 들어갔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에서 외환카드를 분리하는 '외환은행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예비 인·허가'를 승인했다.

단 본허가 전까지 고객정보가 보관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예비인·허가는 본인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법적·물적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아래 인가를 내주겠다는 당국의 의사표시다.

이날 승인에 따라 외환은행은 22일 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카드 독립법인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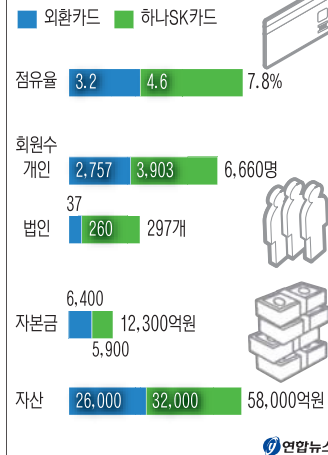
이와함께 하나금융은 분사된 외환카드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기존 카드 계열사인 하나SK카드와의 연내 합병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통합되면 자산규모 5조 8000억원, 업계 점유율 7.8%의 10번째 전업계 카드사가 탄생하게 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오는 6월 말 본인가에 이어 7월1일 독립법인 출범을 추진하는 쪽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며 "250억원을 들여 은행과 카드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조합의 반발을 우려해 외환카드로 옮기는 직원은 3년간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하지만 외환은행과 하나SK카드 노조의 반발이 여전히 첨예한 상태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20일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은행과 카드 전산시스템을 완전하게 분리한 후 분사 승인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국은 외환카드 고객정보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 번의 실사나 검증도 없이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외환은행이 본인가, 본허가를 신청하면 인·허가요건 및 부대조건 충족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신용정보제공 승인요건 충족여부 등도 별도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햇 매실 맛보세요 21일 오전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햇 매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28일까지 전점 고객만족센터에서 담금주 및 장아찌 등으로 수요가 많은 '햇 매실(5kg/1박스)'을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1만5000원에 판매한다. /뉴시스

서울-지방 아파트값 격차 3배 이하로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가 3배 이하로 좁혀졌다.

21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5월 현재 서울의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1642만원, 지방은 598만원으로 2.7배의 차이를 보였다.

5년 전인 2009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이 1764만원, 지방 아파트값이 446만원으로 3.8배 차이 나던 것과 비교해 격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값 격차가 줄어든 데는 5년 전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값은 6.9% 떨어지고, 지방 아파트값은 34.1%가 올랐기 때문이다.

분양면적 105㎡(32평형)를 서울에서 5년 전 매입하기 위해서는 5억6448만원이 필요했으나 올해는 3900만원 줄어든 5억2544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은 5년 전 1억4272만원이 소요됐으나 올해는 4864만원 오른 1억9136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지역별 3.3㎡당 매매가는 서울이 1642만원으로 가장 높고, 신도시 1173만원, 경기도 888만원, 인천 773만원, 부산 740만원 순이다.

전남은 3.3㎡당 42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의 아파트 시세로 전남의 아파트 3.8가구를 매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지난 5년간 서울은 재건축 사업 부진으로 침체가 지속된 반면, 지방은 세종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집값 격차가 줄었다"며 "올들어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더 이상 격차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박선옥기자 pso9820@

신 먹거리 VOD를 잡아라

케이블·IPTV 핵심 수익원… 속도·콘텐츠 경쟁 치열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본방 사수를 외치던 TV 시청행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만 '콕' 집어서 소비하는 형태로 변화한 데다 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모바일 등 IT 기기를 통해 VOD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향후 핵심 수익원으로 떠오른 VOD서비스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21일 홈초이스에 따르면 2009년 263억원에 불과했던 VOD 서비스 매출은 2013년 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작년동기 50% 이상 상승한 14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은 40%를 차지한 영화다. 그 뒤를 지상파 콘텐츠(30%)가 쫓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에 발맞춰 유료방송업계는 소장용 VOD, 월정액 등 고가의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B tv에서 지상파(1만3000원), 프리미어(9000원), CJ E&M(1만원), 캐치온(1만원), 성인(9900원) 등 5개의 월정액 상품을 운영 중이다. 올레tv는 올레TV에서 월 14900원으로 8000편 이상의 영화와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월정액 상품인 '프라임 뮤비팩'과 평생 소장용 VOD 서비스 '클라우드 DVD' 등을 내놓았다. LG유플러스 U+TV G·씨앤앰 등도 한번 만 VOD를 구입하면 서비스 해지 시까지 무제한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해 유료방송업계는 속도, 콘텐츠 다양화 등 VOD 서비스를 진화시키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상파3사 등 일부 콘텐츠를 10분 이내 다시볼 수 있는 '저스트 10분' 서비스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 KT미디어허브 등 경쟁사도 유사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경쟁도 치열하다. 올레tv는 모래시계와 겨울연가, 여명의 눈동자 등 추억의 드라마 4000여편을 VOD로 제공한다. 티브로드는 자사의 다양성 영화 전용 상용관인 씨네큐브 개봉작을 VOD로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시청자의 VOD 선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방송된다. 올레tv는 드라마, 예능, 교양 등 TV 프로그램은 물론 해외 드라마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쇼 '올 댓 TV쇼'를 제작해 방영한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개인에게 적합한 VOD를 고르는데 도움을 주는 것.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업계는 VOD를 핵심 수익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과거 VOD를 한편씩 결제하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정액제, 소장용 DVD 등과 같은 상품 가입자로 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품의 다양화, 고도화를 통해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향후 방송국의 모습은 기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에서 시청자가 원할 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콘텐츠 허브'에 이어 저작권 관리자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승희기자 ssh814@metroseoul.co.kr

미니쿠퍼와 유모차가 만났다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뉴 미니 디자인 & 토이 갤러리'에서 네덜란드 유모차 브랜드 '이지워커'가 자동차 브랜드 BMW 미니쿠퍼와의 콜라보레이션(협업)을 통해 만든 유모차 '미니버기(MINI buggy)'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사각지대

10명 중 8명 가입 안돼

임시·일용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 중 2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67.7%, 건강보험 71.3%, 국민연금 68.4%였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에 그쳤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각각 17.1%와 21.6% 정도로 낮았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97.1%, 국민연금에 97.0% 가입했고 건강보험도 99%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임금근로자 성별로 보면 남자의 가입률은 국민연금 73.6%, 건강보험 77.2%, 고용보험 73.3%였고 여자는 국민연금 61.5%, 건강보험 63.6%, 고용보험 60.5%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부문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직이 많은 농림어업 부문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광제조업 부문 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80%를 상회한 반면, 농림어업 부문 임금근로자는 모두 10%대 가입률을 보였다.

직업별 사회보험 가입률도 관리자는 90%대, 단순노무종사자는 30%대로 격차가 컸다.

16개 시도별로는 울산시가 국민연금 75.0%, 건강보험 77.5%, 고용보험 76.0%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국민연금 57.2%, 건강보험 58.3%, 고용보험 54.5%로 가장 낮았다.

/유주영기자 boa@

삼성전자는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4N5'와 5층에서 삼성 갤럭시S5, 기어 핏을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갤럭시S5·기어핏' 이색마케팅 실시

삼성전자, 신세계百서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와 웨어러블 기기 '기어 핏'을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를 진행하며 독특한 마케팅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4N5'와 5층에서 '삼성 갤럭시S 5+기어 핏과 신세계가 함께 최초로 선보이는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는 패션 모델이 제품을 착용하고 런웨이나 화보 등을 통해 노출하는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형식으로 소비자가 패션 공간에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의 'NBDB(Never Been Done Before)' 마케팅이다.

삼성전자는 백화점을 무대로 IT와 패션, 일상을 넘나드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화점 4층과 5층의 에스컬레이터부터 매장 주변, 복도 등 소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정장, 캐주얼부터 아웃도어 브랜드까지 다양한 패션 브랜드의 의상을 착용한 패션 마네킹이 업무, 여행, 쇼핑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갤럭시S5'와 '기어 핏'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5층 라운지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연출했다. 소비자가 직접 갤럭시S5와 기어 핏, 기어2를 착용하고 마네킹과 함께 앉아 갤럭시S5로 사진 촬영을 하고 인화된 사진을 받을 수 있는 포토존도 준비됐다.

주말에는 특수 분장을 하고 마네킹을 연기하는 석고마임 팀이 등장해 일상 속의 에피소드를 직접 보여 주거나 다른 마네킹과 소통하는 동작을 연출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통신 기본료가 한달 간 무료

CJ헬로비전 내달 25일까지

통신 기본료를 한달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나왔다.

CJ헬로비전의 이동통신서비스 헬로모바일은 다음달 25일까지 통신 기본료 한 달치를 면제해주는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헬로모바일의 대표 상품인 '조건 없는 유심(USIM) LTE'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조건없는 USIM LTE는 약정기간을 없애고 요금도 절감한 요금제다. 현재 '조건없는 USIM LTE 21', '조건 없는 USIM LTE 26', '조건 없는 USIM LTE 31' 등 3종으로 구성됐다.

가입 방법은 헬로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한 후 유심만 교체하면 된다.

이와 함께 헬로모바일은 프로모션 기간 내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커피 상품권 1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전 11시 사이 가입하는 고객은 헬로모바일 모델로 활동 중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의 특별한 만남 기회도 갖는다. 7월 중순 열릴 예정인 이 행사에는 이승기와 함께 하는 포토타임,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서승희기자

30대 그룹 과징금 3년간 2조

LG 8천억으로 최다… 주요 제재 기관은 공정위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3년간 정부기관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LG가 7600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컸고, 1000억 원을 넘긴 곳도 SK·효성 등 5곳이나 됐다.

2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1~2013년 3년 동안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정부기관과 해외에서 받은 주요 제재현황을 조사했다. 이 결과 과징금·과태료는 총 309건, 2조208억 원에 달했다. 그룹당 3.5개월에 한 번, 19억 원 꼴로 제재를 당한 셈이다.

30대 그룹 중 금액이 가장 큰 곳은 7599억 원의 LG(제재 건수 29건)였다. 이는 전체의 37.6%에 달하는 규모다.

LG전자는 201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제조업자 간 담합혐의로 과징금 7000억 원을 부과 받았는데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또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위는 효성(12건)으로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37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SK(46건)는 공정위와 세관으로 부터 총 3230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아 3위에 올랐다.

SK는 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유소 원적관리 담합을 지적받아 각각 500억 원과 760억 원 등 총 1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건은 지난해 8월 SK가 승소했지만, 공정위가 상고한 상태다. SK텔레콤도 공정위로부터 보조금 관련 약 1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4~5위는 KT(1300억 원. 4건)와 현대자동차(1000억 원. 23건)였으며, 제재금액 '톱 5' 모두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1000억 원을 넘었다.

삼성이 955억 원, 51건으로 6위다. 이어 동부(399억 원. 14건)→동국제강(326억 원. 2건)→포스코(264억 원. 3건)→대림(263억 원. 10건) 순이었다.

LS(261억 원. 9건), 한진(250억 원. 2건), GS(198억 원. 10건), 대우건설(185억 원. 7건), 한화(156억 원. 38건) 등도 과징금·과태료가 100억 원을 넘었다.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경고와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 금전적인 제재는 받지 않았다.

제재 건수는 삼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 46건, 한화 38건, LG 29건, 현대차 23건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 제재 건수는 공정위가 35.1% 가장 높았고 금융감독원(25.3%), 법원·검찰(6.9%), 방송통신위원회(6.9%) 등의 순이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SKT, T로밍 팅·실버 무한톡 출시 SK텔레콤은 청소년과 실버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일 5000원으로 소용량 데이터 로밍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T로밍 팅 무한톡·T로밍 실버 무한톡'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한화건설, '상암 오벨리스크2차' 분양

한화건설은 상암 DMC(Digital media City)가 조성돼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에 '상암 오벨리스크 2차'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10층, 전체 732실 규모로 전용면적 21㎡ 128실, 24㎡ 553실, 26㎡ 36실, 35㎡ 9실, 42㎡ 6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상암DMC는 800여 개 기업과 6만8000여 명의 종사자가 상주해 오피스텔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문화공원 조성이 예정돼있다. 평화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 테마로 이뤄진 347만㎡ 규모의 상암월드컵공원도 인근에 위치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등의 풍부한 도로망을 갖췄고, 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 경의선도 이용 가능하다.

주택전시관은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DMC이안상암 2단지 2층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5년 1월 예정. 문의 : 02-302-0700

/박선옥기자 pso9820@

마리화나에 열쇠·살아있는 지렁이까지

글로벌 이코노미

미국에서 자동판매기가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다. 마리화나(대마초)가 자판기에서 버젓이 판매되는가 하면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내놓는 낚시용 미끼 자판기도 나왔다. 최근 미 경제매체 CNN머니는 지나가던 행인의 눈이 휘둥그래질만한 이색 자판기를 소개했다.

◆ 양지로 나온 마리화나

지난 1월 콜로라도주에서 미국 내 최초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 되는 등 마리화나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 애리조나의 마리화나 판매 업체 '어메리칸 그린'은 자판기 판매까지 나섰다.

업체의 최고운영책임자 스티븐 쉐린은 "마리화나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의료용에서 오락용으로 제품 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리화나 자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카드와 운전면허 등이 필요하다. 제품 가격은 20~100달러(약 2만~10만원)다.

◆ 지렁이 미끼 '꿈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살아있는 지렁이도 나온다. 전직 트럭 운전수이자 어부인 개리 하셀은 "해뜬 직후에 물고기가 미끼를 잘 문다. 하지만 아침 일찍 문을 연 가게가 없어 낚시광들이 늘 아쉬워하더라"며 "이 모습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끼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자판기'에 지렁이와 거머리 등 살아있는 미끼를 넣어 24시간 판매를 시작했다. 낚시광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500여개의 미끼 자판기가 설치돼 있다.

◆ 열쇠 잃어버려도 OK

집안에 열쇠를 두고 문을 잠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뉴욕의 한 업체는 열쇠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자판기를 내놨다. 이용 가격은 20달러. 수리 업체에 연락해 새로 열쇠를 만드는 비용의 70~80% 수준이다.

마리화나

발레 슈즈

열쇠

미국 이색 자판기 눈길… 지친발 달래주는 '발레 슈즈'도 인기

열쇠 자판기 업체 '마시'는 "뉴욕시의 편의점 등에 설치된 기계에서 7개월 만에 열쇠가 1만 개나 복제됐다"며 열쇠 수리공의 앞날을 걱정했다.

◆ 자전거 자물쇠와 튜브

미국에서 '자전거족'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부품 자판기도 등장했다. 자물쇠와 튜브 등 부품은 물론 초코바 같은 간식도 함께 판매한다.

판매 업체 '바이크스톡' 대표는 "자전거 이용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리에서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게 부품 자판기의 최고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 발 아플 땐 '발레 슈즈'

하이힐을 신고 걷다 지친 여성들을 위해 편안한 '발레 슈즈'를 내어주는 자판기도 있다. 이 자판기는 2009년 영국에서 처음 나온 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얼마 전 미국에 상륙,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설치됐다. 가격은 한 켤레에 20달러다. 한 판매 관계자는 "검정색과 호피무늬 신발이 가장 잘 팔린다"면서 "한 달에 200켤레 넘게 팔리는 곳도 있다"고 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오바마, 美투자 외국기업 CEO 회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 기업으로 테네시주에 8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국타이어가 포함돼 이병진 미국법인장이 참석했다. /AFP 연합뉴스

미국 기업 해커와의 전쟁

피해 우려 2년새 2배 ↑… 손실 123조 육박

"우리 회사 기밀도 털리는 것이 아닐까."

최근 이같은 우려를 하는 미국 기업수가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 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사이버 보안 피해를 우려하는 미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 1174곳에 달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519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26%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사이버 공격 피해 우려가 급증하는 분야는 은행업이다. 지난 2년간 사이버 공격 관련 사례를 보고한 건수가 36건에서 81건으로 크게 늘었다. 석유·가스 생산업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도 같은 기간 28건에서 62건으로 급증했다.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의 미국 법인인 크라이슬러는 올 3월이후 빈번한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시달리고있다고 SEC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기업 해킹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280억~1200억 달러(약 28조~1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중 사이버 전쟁 일촉즉발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버 전쟁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19일 중국 인민해방군 61398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산업 스파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의 공격으로 원자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철강 업체 등이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보복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해킹 공격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118만 대에 이르는 중국의 컴퓨터를 직접 제어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로봇과 농담 따먹기 해봤나요

히타치 '에뮤2' 시연 화제

SF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주인공 범블비처럼 농담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존재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21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히타치는 유머감각을 갖춘 로봇 '에뮤2'(EMIEW2)의 시연회를 20일 도쿄에서 열었다. 시연회에서 등장한 에뮤2는 적색과 회색이 조화된 키 80㎝의 귀여운 외형을 갖췄으며 다리에 장착된 바퀴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센서와 유머 센서를 탑재해 사전 원고 없이 인간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문장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해 질문 내용을 알아낸 뒤 응답하는 것이 가능한 덕분이다.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표현도 인식할 수 있다.

히타치 연구원은 "상대방과 농담을 할 분위기인지 일상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해 적절히 농담을 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뮤2의 농담 능력은 시연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히타치 연구소 직원들의 질문에 에뮤2는 "우리는 두 마리의 백조를 갖고 있다"고 엉뚱한 말을 했다. 대화 상대가 당황한 것처럼 보이자 에뮤2는 "알아 들었어요? 농담이에요. 우리 연구소에는 약 800명이 일하고 있어요"라고 익살스럽게 받아넘겼다.

히타치는 날지 못하는 새인 에뮤와 같은 발음을 가진 에뮤2 로봇이 가정의 애완동물이나 접수담당자와 같은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국명기자

20일 도쿄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로봇 '에뮤2'가 연구원과 농담을 나누고 있다. /AFP 제공

PC 프로그램 태블릿에서 그대로

MS, '서피스 프로3'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마이크로소프트(MS)는 21일(한국시간) '서피스 프로 3'를 공개했다. 전작인 서피스 프로2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 제품은 전작보다 1.4인치 큰 12인치 화면을 채택했고 화소수(2160×1440)도 전작(1920×1080)에 비해 늘었다.

두께는 10.3mm에서 9.1mm로, 무게는 0.9g에서 0.8kg으로 줄었다.

파노스 파네이 MS 부사장이 21일 '서피스프로3'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텔 i3 코어를 사용한 기본 사양 제품은 799 달러(81만9000원)이며, i5 코어를 쓴 제품은 램과 저장용량에 따라 999~1299 달러, i7 코어를 쓴 제품은 1549~1949 달러다.

가격이 1949 달러(200만원)인 최고 사양 제품은 i7 코어, 8 기가바이트(GB)램, 512 GB 솔리드스테이트디스크(SSD)를 탑재했다.

키보드 겸용 커버 등 주변기기는 별도로 판매된다. MS는 서피스 프로3의 예약 주문을 현재 받고있다.

실제 제품 발매는 사양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소비자는 8월 말 이전에 모든 모델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피스 프로' 제품군은 데스크톱용 윈도운영체제(OS)를 사용하므로 일반 PC나 랩톱에서 쓰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MS는 2012년부터 매년 서피스 신제품을 내놓았으나 애플 아이패드와 삼성 갤럭시 탭·노트 등이 주도하고 있는 태블릿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박성훈기자

KT, LTE 가입자 900만 돌파 KT가 LTE 서비스 상용화 2년 4개월 만에 총 900만명의 LTE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KT 제공

'싸이메라 시즌2' 선물 쏜다

기프티콘·상품권·식사권 펑펑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편집만 해도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스마트폰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인 '싸이메라 시즌2' 오픈 기념 이벤트를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한다.

싸이메라 시즌2 회원가입 후 제공되는 공개앨범 속 사진을 리터치하거나 친구들과 만든 앨범에서 친구의 사진을 페이스팝(Face pop) 또는 미용·콜라주·스티커 등 기존 편집 기능으로 리터치해 공유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매일 1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에뛰드하우스 상품교환권·아웃백 식사권 등 총 1억원 규모의 푸짐한 경품도 준다. /이국명기자

'2014 KOBA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이 마스터 키보드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UHD 방송 "체험 하세요"

23일까지 코엑스서 KOBA… 대형 LED, 3D영상 소프트웨어 등 볼거리

UHD 방송 시대가 활짝 열렸다.

'Join the UHD World!'라는 주제로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4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A)에서 가까운 미래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 'KOBA 2014' 전시회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방송통신융합산업관련 국내 유일의 전문 전시회이자 국제전시협회로부터 국제인증을 받은 글로벌 이벤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KBS, MBC, SBS, EBS, OBS, CBS, 아리랑국제방송, tbs, 한국음향학회, 한국음향예술인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후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소니, 후지, 히타치, 파나소닉 등 일본 브랜드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카메라 부스다.

최첨단 방송·영상 장비인 4K 촬영 카메라와 이를 섬세하게 표현해주는 4K 모니터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4K는 풀 HD(1920×1080)의 약 4배 화소 수로 차세대 고화질 해상도를 뜻한다.

4K 방송 장비로 찍은 영상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UHD TV에서 볼 수 있다.

4K와 UHD 관련 장비가 주목을 받았지만 그 외의 독특한 기술로 무장한 작은 기업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다양한 음향기기를 국내에 들여오는 기어라운지는 아르투리아의 첨단 마스터키보드를 선보였다. 건반을 치면서 다양한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고 수려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토종 디스플레이 기업 삼익은 초고해상도의 대형 LED 스크린 '스마트 월' 디스플레이를 내놓았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전광판 업체로 유명한 삼익은 150인치+200인치+200인치+150인치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스마트 월 디스플레이를 관람객에게 자랑했다.

이 화면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틀면 수족관에 와 있는듯 한 느낌이 든다.

한국인터넷소프트웨어는 방송용 3D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다. 카메라 앞에 사람이 서면 TV와 같은 스크린에서 사전에 설정한 배경이 나타난다.

즉 촬영 뒤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CG'효과를 낼 수 있다.

그밖에 모바일TV, 디지털콘텐츠, 편집시스템, 송출·송신관련 기기, 영상편집기기, 문자발생기, CATV시스템, 인터넷·위성방송관련 기기, 마이크, 헤드폰, 믹서 등 음향관련 기기와 조명·무대관련 장비 등 700여기종 1만여점이 전시돼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LG U+, '웹하드 그룹' 서비스 출시

LG유플러스는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웹하드'에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더한 '웹하드 그룹'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용량 파일 전송과 공유라는 기존 웹하드 기능에 업무 관계자들이 웹과 모바일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공유용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별도로 만드는 등 업무 보안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파일을 공유하려면 웹하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업무 관계자 모두와 공유해야 했고 이로인해 보안 문제가 불거졌다.

LG유플러스는 업무용 클라우드 웹하드 서비스에 웹과 모바일 에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웹하드 그룹'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알림 기능도 추가됐다. 알림기능은 그룹 구성원이 파일을 등록하거나 확인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이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는 LG유플러스의 웹하드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승희기자 ssh814@

한화리조트 다양한 행사 '고객 유혹'

어린이 위한 프로그램 마련… 업그레이드된 63씨월드도 볼거리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5월 나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체험하며 즐기는 프로그램 가득

먼저 한화리조트는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과학 체험극 '사이언스편'으로 한화리조트는 24일 한화리조트 양평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전국의 한화리조트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공기대포 촛불 끄기 ▲드라이아이스 풍선 폭탄 ▲액체 질소 풍선 마술쇼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또 한화리조트 조리장이 직접 참여하는 가족 요리교실인 '케익 만들기 체험'(사진)도 나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6월부터 매주 토요일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와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 그리고 한화리조트 양평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설악 쏘라노의 '한지 부채 만들기',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의 '가족 사진 이벤트'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가득하다

◆새로움이 넘치는 63씨월드

이와 함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63씨월드는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이며 업그레이드를 시도했다.

우선 ▲책읽는 뽀로로 ▲파도타는 뽀로로 ▲차 타는 뽀로로 등 총 8개의 대형 뽀로로 입체 포토존을 수조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뽀로로 테마전'이 개최된다.

또 63씨월드 지하 2층 정글존도 대폭 업그레이드돼 관람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청금강앵무, 썬뉴코어 등 9종 50마리의 화려한 앵무새가 모여있는 '앵무새존'이 새로 오픈됐다. 캥거루쥐와 프레리독, 친칠라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설치류 동물도 구경할 수 있다.

이외에도 5월 한 달간 63빌딩 현장 매표소에서 롯데카드로 '63빌딩 BIG3 패키지'를 구입하면 본인은 1만원에, 동반 3인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63씨월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4일 전국 한화리조트 및 춘천 제이드가든 수목원에서는 '제1회 전국 한화리조트 어린이 미술대회'가 열린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모두가 행복한 관광을 만들어 나가겠다"

관광공사 새 비전 발표… 가수 알리 사회공헌대사 임명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최근 관광공사 TIC상영관에서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KTO 비전 나눔식'을 열었다.

관광공사의 새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관광을 만들어 나가는 국민기업'이다. 국내외 여행객, 관광업계,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행복을 중시하고 창조관광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을 의미한다.

또 관광공사는 국민 모두가 관광으로 행복하고 관광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창조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사업 추진 방침으로 ▲변화 ▲소통 ▲상생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관광공사는 ▲국민행복을 위한 관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 ▲관광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첨병 역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적으로 정부 3.0에 대응하는 '관광 3.0'이라는 창조 솔루션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10대 과제를 선정·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에는 관광 유관기관, 학회 및 업계, 관광공사 임직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기 가수 알리(ALi)는 관광공사의 사회공헌대사로 임명됐다. 임직원들은 공사와 함께하는 개인 비전과 CEO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적어 비전트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7명, '한국 불안해'

1위는 전쟁 위험…여행 중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도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7명이 한국의 안전을 불안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관광 전문 여행사 코스모진(대표 정명진)은 외국인 설문조사 기관 코스모진 관광 R&D 연구소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23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56명(67%)이 한국의 안전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국여행의 안전도를 상·중·하로 묻는 질문에서도 과반수 이상인 64%(148명)가 하를 택했다.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전쟁 가능성 ▲안전사고 ▲도난 ▲언어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사인물을 통한 신고 방법의 안내와 홍보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재용기자

아라뱃길서 한바탕 놀고 축구보러 가자~

인천 AG 주경기장서 다음달 1일 축구 평가전 열려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무료셔틀버스 운행돼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축구경기도 보고 아라뱃길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완공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에서 다음달 1일 한국과 쿠웨이트의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평가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는 경기장 개장 이벤트 성격으로 열려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 경기장 인근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돼 수도권에서도 쉽게 경기장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검암역에서 5분만 걸으면 최근 나들이 장소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을 만날 수 있다. 경기 관람 후 아라뱃길을 찾으면 화려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역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경기 전에는 산책은 물론 가족이나 연인과 자전거 하이킹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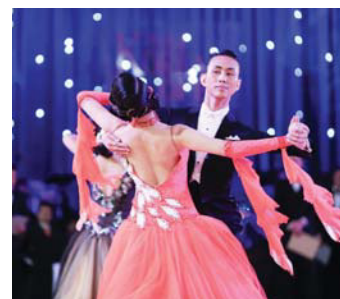
5층 규모에 6만2818석의 관람석이 있는 주경기장은 아시안경기 하이라이트인 개·폐막식과 육상 경기가 열린다. 게다가 외관은 동아시아의 허브도시로 비상하는 '춤추는 인천'을 형상화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나들이 장소로 알려진 아라뱃길(위)과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화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호텔

내국인 고객 늘어나자 다양한 변신

호텔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내며 문화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 내국인이 새로운 호텔 소비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고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호텔을 방문할 수 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댄스·문학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준비

먼저 The-K호텔서울은 지난 9월 컨벤션센터를 개관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올가닉'을 주제로 한 'The K-스타일 페스티벌'을 열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각종 국내외 세미나와 학술대회는 물론 '스트릿 올 라운드 챔피언십', '2014 코리아 오픈 국제 댄스 챔피언쉽'(사진) 등을 개최했다.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은 지하 1층에 문화시설을 조성했다. 종로구와 문화시설 무상 사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20년간 호텔 지하 1층에 국악 공연, 전시홀, 문화교실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들어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연계한 파티와 행사도 준비된다.

이와 함께 반얀트리는 꾸준한 음악·댄스 공연 프로그램으로 고객을 맞이한다. 지난해 8월 처음 시작된 '재즈 인 더 시티'를 비롯한 재즈 공연이 대표적이다. 오는 29일에는 독특한 클래식 선율과 함께 열정적인 탱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탱고인 오아시스' 공연이 열린다.

또 서울 프린스 호텔은 젊은 문학인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텔 객실 1~2개와 제주 남원읍에 있는 숙소 1~2개 동에 작가들이 머물면서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호텔 별관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작가 초청 강연회와 낭독회도 열고 있다. /황재용기자

주류업계, 프리미엄 맥주 출시 잇따라

오비맥주 '에일스톤' vs 하이트 '퀸즈에일' vs 롯데 '클라우드'

오비맥주 에일스톤 출시 행사 장면. /오비맥주 제공

국내 주류업계가 맥주시장의 대목인 여름철을 앞두고 프리미엄 제품을 잇따라 선보였다.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는 일부의 편견을 넘어 각 업체는 자존심을 걸고 프리미엄급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맥주의 주요 소비층인 20·30대 고객을 주 타깃으로 한 마케팅 전쟁은 이미 불이 붙었다.

글로벌 프리미엄 맥주 선호도는 2011년 13.7%에서 2012년 14.5%, 2013년에는 15.8%로 매해 증가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코리아(Ipsos)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전국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성인 9620명을 대상으로 맥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20·30대의 글로벌 프리미엄 맥주 선호도는 2011년 18.19%에서 2012년 18.90%, 2013년 20.12%로 조사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

롯데주류는 유통 대기업에선 처음으로 자체 브랜드로 맥주시장에 진출해 지난달 22일 첫 제품인 '클라우드'를 내놨다.

한국을 대표하는 맥주를 선보이고자 한국을 의미하는 Korea의 'K'와 풍부한 맥주 거품을 형상화한 구름의 영문 'Cloud'를 결합해 브랜드명에 담았다.

이 맥주는 독일 등 엄선된 유럽의 홉과 효모를 사용해 만든 정통 독일식 프리미엄 라거맥주로 풍부한 거품과 진한 맛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하지만 시음현장에서 생맥주와 캔맥주, 병맥주의 맛이 각각 다르다는 평이 나와 맛의 일관성과 균일성 확보는 숙제로 남아있다.

오비맥주는 정통 영국 스타일의 프리미엄 에일맥주 '에일스톤(ALESTON)'을 지난달 1일 선보였다. 오비맥주가 자체적인 브랜드명으로 에일맥주를 선보이는 것은 처음으로 '브라운 에일'과 '블랙 에일' 2종으로 출시했다.

에일맥주의 종주국이면서 강대국인 영국의 정통성을 표방하지만 '에일스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어울리는 특색 있는 맥주로 새롭게 탄생했다.

'에일스톤' 브라운 에일(알코올도수: 5.2%)은 홉의 귀족이라고 불리는 노블 홉(일반 맥주보다 3배 더 사용)과 페일 몰트를 사용했다. 매력적인 짙은 아로마 향과 고혹적인 자주색으로 구현된 정통 영국식 페일 에일맥주다. 일반 공정에 비해 맥즙을 1.5배 이상 오래 끓이는 LTBT(Long Time Boiling Technology)공법을 활용, 노블 홉의 매혹적

(사진 왼쪽부터)롯데주류의 '클라우드', 오비맥주의 '브라운 에일'과 '블랙 에일', 하이트진로의 '에일맥주'과 '퀸즈에일'

인 향을 최적화했다.

'에일스톤' 블랙 에일(알코올도수: 5.0%)은 영국산 블랙 몰트와 펠렛 홉을 사용해 흑맥주의 쌉쌀한 맛과 부드러운 거품을 함께 구현한 크리미한 흑맥주다. 특히 고온 담금 방식인 HTMI(High Temperature Mashing-In) 공법과 영국 정통 방식으로 로스팅한 블랙몰트로 블랙 에일만의 풍성한 거품을 구현해 냈다.

이 맥주는 출시 8일 만에 35만병(330㎖기준), 50일 만에 100만병 판매를 기록하며 맥주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9월 에일맥주와 퀸즈에일을 출시했다. 퀸즈에일은 하이트진로가 맥주연구소 덴마크 알렉시아(Alectia)와 기술제휴를 통해 3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페일 에일(Pale Ale) 계열 프리미엄 맥주다.

100% 보리(맥아)를 원료로 에일맥주의 깊은 맛과 함께 3단계에 걸친 아로마 호프 추가공법인 '트리플 호핑 프로세스(Tripple Hopping Process)'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 페일 에일 특유의 향이 진하고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퀸즈에일은 블론드 타입(Blonde Type)과 엑스트라 비터 타입(Extra Bitter Type) 등 2가지로 출시됐다. 블론드 타입은 맥아의 맛과 홉의 향이 균형감을 이룬 페일 에일의 특징을 잘 살린 제품이다. 엑스트라 비터 타입은 홉의 함량을 높여 깊고 강렬한 에일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살렸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비염, 중이염에는 '통비환'과 '정이수'

곽계원 백동한의원 원장, 질환 치료 위한 다양한 약제 처방

큰 일교차와 높은 낮 기온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으로 비염과 중이염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비염과 중이염 환자들은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아 여러 약제를 통한 치료를 받는다.

그중 최근에는 내복약과 함께 투여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방 약제들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한방 외용약 치료의 의미로 코 안에 삽입하는 통비환(通鼻丸)이나 바르는 통비연고(通鼻軟膏), 뿌리는 상림수(尙林水) 등은 비염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또 귀에 바르는 한방 점이약인 정이수(淨耳水)는 중이염 치료를 돕는다.

통비환과 정이수 등을 직접 처방하며 비염과 중이염을 10년 이상 치료해온 곽계원 백동한의원(구 상림한의원) 원장은 "내복약과 함께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약제를 처방하고 있다. 만약 체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탕약이나 환약을 투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강강술래, 프리미엄 식품 불티…전년비 30%↑

안전먹거리 선호현상 뚜렷…곰탕·육포 등 선물로 인기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의 곰탕, 육포 등 프리미엄가공식품 선물세트가 전년보다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가정의달 선물로 안심 먹거리 선호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한우사골곰탕'은 HACCP 인증시설에서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 만들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도 이물질 침입을 막기 위해 이중포장 방식을 적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달 3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쇠고기 육포 6입 세트는 2만1600원, 12입 선물세트는 4만42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곰탕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3만8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같은 기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통등심돈가스와 모짜렐라치즈돈가스, 칠칠한우떡갈비, 흑임자한돈너비아니가 각각 1세트씩 구성된 어린이선물세트도 40% 할인된 3만9000원에 판매한다. 구매 시 버블건 장남감을 선물로 준다.

한편 5월 말까지 라임나무치과병원과 함께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어려운 이웃 3분을 선정, 임플란트 또는 틀니를 무료로 시술해주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한다.

라임나무치과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임플란트·심미보철·교정·미백·충치치료 등 분과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분야 최고 실력을 갖춘 의료진이 신속한 맞춤 진단과 협진에 의한 원스톱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정영일기자

인성내추럴, '2W 다이어트' 선봬

인성내추럴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2W 다이어트'를 출시했다.

2단계 한 세트로 구성된 이 제품은 2주 동안 체지방 감소와 함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채워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요요 현상 걱정이 없고 원활한 배변활동까지 도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도록 해준다고 밝혔다.

모으면 모을수록 대박 혜택!

혜택 가득한 자유

하나 Free

자유여행을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하나Free" 혜택!

모으면 모을수록 커지는 대박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많은 혜택 누리세요~!

하나Free 상품 동시 구매 혜택!

하나Free상품	할인혜택	마일리지혜택
자유여행만들기: 항공권 + 해외호텔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최대 30%	
항공권 + 해외호텔	해외호텔 10% (단, 료칸, ibis, Adagio호텔체인 할인제외)	1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 중 1개 상품만 구매해도 동일 할인적용)	1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해외호텔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 중 1개 상품만 구매해도 동일 할인적용)	총 금액의 1% 마일리지 추가적립

- 하나투어닷컴을 통한 온라인 예약에 한해 혜택을 드립니다.
- 동시구매는 반드시 같은날 자정 이전에 모든 예약을 하셔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할인 혜택은 반드시 전화로 요청을 하셔야만 할인 적용됩니다. (단, 자유여행만들기의 상품조회시 이미 할인 적용 된 가격)
- 하나투어 마일리지클럽에 가입하셔야만 마일리지 적립을 받으며 예약코드당 예약자 한 분에게만 적립됩니다.
- 추가 마일리지 적립은 항공출발일 및 호텔투숙일 기준으로 그 다음달 10일 이전에 적립됩니다.
-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은 최대 할인율로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더블마일리지 적립의 경우 상품가격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시 추가비용에 대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 1566-0223

www.hanatourist.com

상기상품은 (주)하나투어에서 각각의 공급처에서 제공받아 알선/판매합니다. 항공기,열차표,입장권,숙박권 등은 해당 공급자의 판매규정에 따라서 취소위약금 등이 발생되오니 예약 및 구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주)하나투어 ■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26004-1993-6(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 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우리 회사 강제 퇴근시키고 장기 휴가·여행도 보내줘요~"

대상 '이색 경영' 화제…아이디어 속출, 매출 급증으로 이어져

공자는 "사람이 예순 살이 넘으면 생각하는 것이 원만해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해서 이 나이를 '이순(耳順)'이라고 불렀다.

국내에서 장수 기업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대상(대표 명형섭)은 올해로 창립 58주년을 맞이하며 이순(耳順)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자 말씀대로일까? 대상의 귀를 연 이색 경영이 결실을 맺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1956년 창립한 대상㈜은 이미 2009년부터 즐거운 일터 만들기를 위한 변화를 시작해 왔다. 지난 반세기 종합식품회사로서의 탄탄한 입지를 다진 이 기업은 보수적인 기업분위기 쇄신을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대상(주) 청정원 어린이집 가족지원프로그램 /대상 제공

그 첫 걸음으로 획일적인 회사 유니폼을 벗어 던졌다. 창의적인 마인드로 업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복장 자율화를 시행, 노타이에 캐주얼 복장 등으로 자신의 개성을 살린 스타일로 출근하고 있다.

또 대상은 화목한 가정을 중시해 저녁 7시 이전 강제퇴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후 5시30분이 되면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토록 하고 있다. 업무량이 많을 경우에도 저녁 7시 전까지는 무조건 퇴근해야 한다.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사장이 직접 나서 정시퇴근제 실천 여부를 점검한다. 누적된 정시퇴근 현황 자료는 연말 인사고과와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 이 기업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모든 직원이 5시30분 정각에 일제히 퇴근하는 '가족사랑데이'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일이 되면 전국의 영업조직은 오후 2시에 실적을 사전 마감하고 이 시간이 되면 사무실의 모든 전원과 PC를 끄고 퇴근해야 한다.

이 밖에 사원 개개인의 휴식과 안정을 통한 일의 능률 향상을 위해 5일 이상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장기 리프레쉬데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1년 3월에는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정원 어린이집도 개원했다. 올해 3월에는 경기도 인근에 주말농장을 마련해 임직원 50개 가족에 분양했다.

특히 이 회사가가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3~4명 단위의 팀을 만들어 해외여행 계획을 발표하고, 회사는 반기별 1회에 걸쳐 4~5개 팀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ACE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2010년 시행 후 지금까지 총 200여명의 직원들이 해외여행 지원을 받아 호평을 얻고 있다.

가족친화경영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직원들의 반발도 거셌다고 한다. 하지만 긍정의 마인드는 성과로 이어져 2009년 이후 매출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8년 9203억 원으로 떨어진 대상의 연간 매출은 정시퇴근제 도입 원년인 2009년에 1조90억원으로 식품업계 1조 클럽에 재진입했다. 2013년에는 1조5703억원(연결기준 2조5423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직원들의 창의력 향상과 업무집중 덕분이라고 회사 측은 보고 있다.

홍보팀 관계자는 "직원들의 창의력은 2009년에 현실화 돼 주력 제품인 고추장의 주원료를 밀가루에서 우리 쌀로 바꾸는 혁신을 이뤄냈다"며 "카레나 수프 등 우리 쌀을 활용한 차별화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밀가루 사용을 줄이면서 급등하는 국제 밀가루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식품 분야 영업이익 상승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고구마츄, 컵국밥 등 창의력을 발휘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돼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귀띔도 했다.

이 회사 명형섭 사장(사진)은 "성공적인 기업 경영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창의력인데,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력은 화목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현재 사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크다이어트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임직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의 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초여름 필수 아이템, 피케셔츠로 '쿨'하게

지난 21일은 봄에서 여름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소만이었다.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며 가볍고 시원한 패션 아이템인 피케셔츠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피케셔츠는 처음 스포츠의류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쿨비즈 룩이나 리조트 룩, 나들이 룩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어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단일 색상의 솔리드 피케셔츠는 단정하면서도 차분한 옷차림을 연출하고 싶을 때 안성맞춤이다. 자칫 단조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지만 카라나 소매끝단에 포인트 배색을 가미한 셔츠를 선택하면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피케셔츠의 경우 편안하게 입는다고 품이 넓거나 큰 사이즈를 선택하면 자칫 촌스러운 동네 아저씨처럼 보일 수 있다. 가급적 체형에 맞춰 딱 떨어지는 스타일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함께 입을 팬츠는 밑단을 살짝 올린 롤업 스타일로 연출하고 보트슈즈나 슬립온을 매치하면 여심잡는 남성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

줄무늬나 패턴이 들어간 피케셔츠의 경우는 몸집이 크거나 배가 나온 체형의 남성이라면 최대한 선이 가는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굵은 스트라이프는 자칫 나온 배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경쾌한 느낌의 피케원피스 아이템을 눈여겨 볼만하다.

/김학철기자

5월을 알차게…'알뜰 이벤트' 다양

무료 와인 제공, 면세점 골드카드 발급 등

각종 기념일 많았던 5월.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어느덧 월말이 다가왔다. 남은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소개한다.

캐주얼 스파클링 와인 '버니니(Bernini)'는 5·6월 두 달 동안 영화 속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이색 이벤트를 벌인다. 이번 이벤트는 영화관 CGV의 골드클래스 5개 지점에서 1만5000원에 페퍼로니 또는 허니 갈릭 피자와 버니니 2병을 제공받을 수 있다. 씨네드쉐프에서는 웰컴 드링크로 버니니가 증정된다.

신라 인터넷 면세점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신혼부부 혜택 패키지인 'We Got Married'를 펼친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에 청첩장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관련 내용을 적으면 된다. 본래 이 면세점의 골드카드 발급은 3000달러 이상 구매 시 발급되며 쇼핑 때 최고 15% 할인 혜택을 받는다. 행사 참여 후 결제 시 즉시할인 가능한 마일리지와 웨딩 쿠폰 6종도 함께 증정된다.

애경의 메이크업 브랜드 '루나'는 오는 30일까지 유용하게 사용되는 메이크업 제안 기획전을 연다. 캠퍼스 여신으로 등극하는 메이크업 비법과 로맨틱한 드라마가 현실이 될 수 있는 데이트 메이크업, 5월 하객을 위한 메이크업 방법 등을 소개한다. 최대 1만원~1만1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정영일기자

토니모리, '토니유니 서포터즈' 모집

토니모리(사장 오세한)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토니유니 (TONYUNI)' 2기를 모집한다.

토니모리에 애정이 있는 적극적인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2기는 6개월간 토니모리 신제품 품평과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월별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방법은 토니모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총 50명을 선발하게 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소비자 유혹하는 '시리즈 마케팅'

수집욕구 자극… 지속적인 구매 이끌어

소비자들의 수집욕구를 자극하면서 '대박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제품들이 있다. 이 제품들은 시리즈로 출시돼 하나의 시리즈를 모두 가져야 만족하거나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될 때마다 원하는 제품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실용적인 제품들로 시리즈를 구성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같은 물병 다른 디자인으로 구입

락앤락이 최근 선보인 '비스프리 콜렉션물병'(사진 위)은 세계 문화 캐릭터 5종과 키즈 캐릭터 5종, 총 10종으로 구성돼 어린 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취향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다. 캐릭터마다 특색 있는 얼굴과 옷차림, 그리고 모자로 표현된 개성만점 뚜껑은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은 물론 수집의 재미까지 더해준다.

이 물병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특징은 여러 개의 물병을 산다는 것이다. 실제로 락앤락의 온라인 쇼핑몰 락앤락몰에서 콜렉션물병의 구매성향을 분석한 결과 2개 이상을 구매한 고객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여러 개 구매해 그때그때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기에 출시 한달 여 만에 품절된 제품도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옷으로 아티스트 디자인 소장해

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매 시즌마다 새로운 디자이너 혹은 주제로 컬렉션 라인을 선보인다. 유명 디자이너나 화가, 만화 등의 패턴 및 디자인을 모두 내 옷장에 넣어둘 수 있다는 것이 유니클로 콜렉션의 인기 비결이다.

최근에는 뉴욕 현대 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해 패션과 예술을 접목시킨 '서프라이즈 뉴욕(SPRZ NY)'(아래) 프로젝트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컬렉션은 유니클로의 티셔츠, 탱크탑 등 기본 아이템부터 파카, 크롭 팬츠, 컨버스 백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서프라이즈 뉴욕 로고 시리즈 제품을 비롯해 앤디 워홀·키스 해링·장 미쉘 바스키아·라이언 맥긴리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 8인과 합작한 제품을 함께 내놨다. 또 뉴욕 현대 미술관이 선별한 작품이 반영된 'MoMA 스페셜 에디션'도 판매하고 있다.

◆출시될 때마다 사 모으는 틴트

세계 최초로 틴트 제품을 만들어낸 베네피트 틴트 제품은 다음 제품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무조건적인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공백을 깨고 4번째 시리즈로 출시된 '롤리틴트'가 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이번 롤리틴트는 미국 컬러 연구소 팬톤이 선정한 2014년 트렌드 컬러인 '오키드 핑크빛'을 띠어 올 시즌 트렌드를 반영했다. 오키드 핑크는 보라빛과 핑크빛의 중간 단계의 핑크로 웜톤과 쿨톤 피부 모두 잘 어울리는 색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유통업계, '믹스매치' 열풍

카레+라면, 패션+패스트푸드 등 조합 돋보여

최근 유통업계의 화두가 '믹스매치(mix-match)'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식품을 비롯해 패션·인테리어 등 다방면에서 의외의 조합 열풍이 거세다.

'믹스매치'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중요한 공정에서는 우수한 장비를 사용하고 보통의 공정에서는 기존의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을 일컫는 경제용어로 주로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한 식품업계 제품으로는 카레라면이 있다. 오뚜기 측은 국물맛은 분말 스프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면발에 강황을 섞은 라면 면발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기존 라면과 달리 굵고 납작한 면발을 채택해 카레 향이 가장 잘 배이면서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패션계에서도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게 만나 재미를 주고 있다. 샤넬은 패션쇼 무대를 마치 대형마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만들고, 모델들이 카트를 끌고 실제 쇼핑하는 상황을 연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패션업체 모스키노(사진)는 이례적으로 이종업종인 맥도날드의 M을 자사 브랜드의 이니셜 로고와 조합해 옷·가방·핸드폰 케이스 등 다양한 패션 장르에 적용했다.

또 깔끔하면서도 멋스러운 모던 빈티지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소비자의 호응을 얻자 침구 전문기업 이브자리는 서로 다른 색과 패턴 등을 크로스 코디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침구인 '믹스 앤 매치' 제품을 출시했다. /정영일기자 prms@

화이트와인 강세 홈플러스가 파이니스트 와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40%를 화이트와인이 차지하며, 국내에서 압도적인 레드와인 매출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파이니스트 화이트와인의 상품수도 현재 2011년 론칭 첫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홈플러스 제공

환절기 고민 덜어줄 비타민 화장품은?

비타민A·트러블케어엔 비타민B 추천

햇볕이 부족한 겨울에는 비타민D를, 기력이 약해지기 쉬운 더운 여름에는 비타민C를 특별히 챙겨야 한다. 이렇듯 계절이 바뀌면 피부에 필요한 비타민도 바뀌게 마련이다. 특히 환절기에는 높은 일교차로 피부 스트레스가 심해져 낮 동안의 자외선이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각질을 유발하므로 각자의 피부 고민에 맞는 비타민 화장품을 찾아야 한다.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인 비타민A는 지친 피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성분이다. 피부 손상을 개선해주며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면서 표피를 두껍고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타민A는 우리의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구석구석까지 충분하게 전달해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준다. 아스타리프트의 '루나메르 크림'(사진 아래)은 루나메르 라인 중 미세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된 제품이다. 오래된 피부세포를 새로운 피부세포로 교체해 칙칙함 없이 생기있는 피부로 만들어 준다. 또 피부 유해성분을 정화해주고 세포를 활성화해 피부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가꿔준다.

◆안티에이징에 비타민C 화장품

비타민C는 칙칙해진 피부를 투명하게 해주는 산화 작용으로 이미 화이트닝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는 피부에 탄력을 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하는 특징을 가져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꼽힌다.

LG생활건강의 '프로스틴비타민C 컨센트레이트'(위)는 합성비타민C 유도체가 아닌 순수 비타민C 성분을 15% 고농축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스틴만의 냉장기술로 안정된 신선한 순수 비타민C가 칙칙하고 늘어진 피부의 안색과 탄력을 개선해준다.

비타민 B군은 피지선과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며 각종 공해나 스트레스, 자외선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특히 비타민 B2와 B6는 피지분비를 조절해 여드름 생성을 막고 거친 피부에 도움을 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오르비스의 '클리어 스텝 비타민B'는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B를 손쉽게 보충해 체내 대사가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돕는 뷰티 푸드 제품이다. 특히 피지분비를 조절하는 비타민B2, 부족하게 되면 피부와 점막에 염증을 유발하는 B3와 B6를 공급해 성인 여드름을 예방해준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제이컴코퍼레이션, '더스타일하우스' 오픈

캔들과 디퓨저 제품 판매

제이컴코퍼레이션은 영국 왁스리리컬(Wax-Lyrical)의 캔들과 디퓨저 제품을 판매하는 더스타일하우스(www.thestylehouse.co.kr)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왁스리리컬사는 영국 왕립 원예협회 회원으로 인체에 유해한 파라핀을 넣지 않고 천연 에센셜 오일 향을 사용하는 브랜드다. 더스타일하우스는 왁스리리컬의 캔들과 디퓨저는 물론 아토피 예방, 악취 제거를 위한 기능성 제품, 에센셜 오일 등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스토리가 있는 쇼핑몰을 내세우며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해 다른 쇼핑몰과의 차별점을 뒀다.

한편 더스타일하우스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대 50% 할인된 다양한 세트상품을 준비했으며 오픈 기념 가입 축하금과 적립금도 제공하고 있다. /정혜인기자

"을수로 살다보니 눈매도 달라졌죠"

조정석

영화 '역린'의 슬픈 암살자

배우 조정석(33)은 '정석'이라는 이름과 달리 자유 분방한 연기자였다. 영화에서 특색 있는 인물을 그린다. '건축학 개론'(2012)의 납득이는 허당 연애 고수였고, '관상'(2013)에선 코믹하면서도 조카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지닌 팽헌 역으로 관객을 웃기고 울렸다. 올 해 '역린'으로 말보다는 눈빛과 표정으로 조선시대 슬픈 살인마 을수로 돌아왔다.

◆ 영화 '역린' 만족스럽나?

영화가 관객에게 공개됐을 때 호불호가 분명했다. 나 자신은 만족한다. 많은 이야기를 담기엔 상영시간이 부족했고 편집은 어떤 영화든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정말 매력적이었다. 실존과 허구가 얽혀 있는 구성력이 재밌었다. 영화를 본 지인들은 '정조도 을수도 모두 주인공 같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 이처럼 등장 인물, 각자의 이야기로 영화가 짜여 있는 점이 '역린'의 강점이다.

◆ 을수는 살인을 위해 길러진 인물이다

어릴 때부터 생존을 위해 살아야 했다.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감정 흐름을 따라 가려고 했고 대본에 드러나지 않은 공백을 상상했다. 인물을 연기할 때 극 사실주의적으로 파고 든다. 그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표를 지니고 있는지 등에 집중한다. 을수로 살면서 내 눈매가 달라져 있다는 걸 문득 느꼈다.

◆ 냉혈한이 월혜(정은채)에게 첫눈에 반하는 설정이 와 닿지 않았다

을수와 월혜의 첫 만남이 편집됐다. 그 장면에서 을수는 떨린다.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준다'는 말이 있지만 을수는 다르다. 사행이라는 걸 알면서도 광백(조재현)에게서 월혜를 지키기 위해 정조를 암살하려간다. 냉혈한이지만 월혜에게 만큼은 예외다.

◆ 정조를 암살하는 장면을 오래 찍었다고 들었다

문 앞에서 안에 있는 정조를 보러 가기까지 긴박한 장면을 20일 정도 찍었다. 겨울이라 추웠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분장이었다. 사람들이 대걸레 머리라고 부르는 긴 머리와 수염, 피 묻은 얼굴 등을 갖추는 데 2시간 가량 걸렸다.

◆ 정조 역할도 어울릴 것 같다

시나리오를 보면서 현빈이 맡은 정조와 정재영의 갑수 역할이 모두 탐났다. 개봉한 후 무대 인사를 돌면서 '역린'을 다시 봤다. 누구나 처음엔 자신이 맡은 인물 위주로 본다. 그런데 여러 번 보면 작품과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비교하는 큰 눈이 생기게 된다. 특히 현빈이 연기한 정조는 정말 그 당시에 그랬을 거 같다. 그 동안 정조를 연기한 배우는 많았지만 굳건하고 강직하며 약한 모습을 감추려는 정조가 진짜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말보다 눈빛 표정으로 전작과 차별
마지막 연애 3년전, 유부남 부러워
뮤지컬 '블러드…' 7세 꼬마역 연습

◆ 현빈의 등 근육이 화제였다

을수는 노출 장면이 없어서 다행이다. 동네에 있는 진짜 싸움꾼들은 을수처럼 아무 것도 없다. 날 것의 액션을 하는 을수를 만들고 싶었다. 전문적으로 검술을 하는 것보다는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

◆ 현빈보다 팔이 짧아서 죽은 것 같다

팔 길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다. 솔직히 내 신체에 비해선 팔이 긴 편이다. 물론 현빈보다는 짧다. (하하)

◆ '역린'으로 변신하고 싶었나

아니다. 영화 '건축학 개론'의 납득이로 많이 기억해 준다. 영화 '관상'때도 조선 판 납득이란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고 '변신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출연하지 않는다. 역할에 충실 할 뿐이다. 공연을 10년 했다. 바람둥이부터 순수남, 열등남, 순정남 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재밌고 즐거우면 한다'는 룰이 생겼다. 나중에 납득이 같은 역할을 또 할지도 모른다. 욕해도 어쩔 수 없다.

◆ 염두에 둔 차기 작은?

모르겠다. 지금은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만 생각하고 있다. 7살 꼬마 역할인데 매일 밤 늦게까지 연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 연애할 시간이 없겠다.

마지막 연애를 한 건 3년 전이다. 영화 '건축학 개론' 이후부터 쉰 적이 없다. 친구들이 결혼하거나 애 낳는 거 보면 부럽다.

◆ 영화계 블루칩이 됐다

행복하다. '신세 진 사람에게 보답할 때'란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내 위치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신념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올댓시네마·디자인/최송이

비핸즈카드 제공 (제품번호:BH2137)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랭키닷컴-랭키순위란? 최근 12주간 랭키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 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본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시청률 1위 하면 비키니 입고 길거리…"

(왼쪽부터) 모델 송경아, 가수 아이비, 모델 아이린 /패션앤

'파워블로거' 아이비, 뷰티 멘토 변신
패션앤 '팔로우미 3' MC 여심 공략

파워블로거로 유명한 가수 아이비가 여성들의 뷰티 멘토로 변신한다.

아이비는 21일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열린 패션앤 '팔로우미 3'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게 된 모델 송경아·아이린과 각오를 다졌다.

이날 아이비는 "패션·뷰티 프로그램 MC를 정말 하고 싶었다"며 "제가 입은 옷이나 직접 써본 화장품을 블로그에 공개했더니 모두 완판 됐다. 3년 반 정도 블로그를 운영하니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다. '생얼' 공개는 물론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팔로우미 3'에 아낌없이 쏟아 부을 예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아이비의 블로그는 약 1400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며 지난 2012년 파워 블로그로 선정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패션·뷰티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 '팔로우미 3'만이 가진 강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이비는 "우리 세 사람이 직접 사용해보고 솔직한 평가를 내릴 예정"이라며 "제모기 체험을 해야 하는데 인중에 털이 좀 난다. 첫 회에서 제모기로 수염을 지져볼 생각"이라고 말해 망가져서라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을 내비쳤다.

아이비와 함께 '팔로우미 3'의 MC로 낙점된 송경아와 아이린도 모델 활동을 통해 쌓은 몸매와 피부 관리 비결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송경아는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한 번 '팔로우미'의 진행을 맡게 됐다. 그는 2007년 엠넷 '트랜드 리포트 필'을 이끌며 재치 넘치는 입담과 모델다운 패션 감각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은 이후 꾸준히 패션·뷰티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약 중이다.

송경아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 길거리에서 워킹을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이에 아이비는 "비키니를 입고 걷자"고 제안해 두 사람을 당황케 했다. '팔로우미 3'의 막내이자 20대 여성의 패션과 뷰티를 맡게 된 아이린은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한편 패션·뷰티·라이프를 총 망라한 다양한 아이템과 정보를 제공하는 '팔로우미 3'는 오는 28일 자정에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단발머리 '제2의 크레용팝'
소속사 후배 걸그룹 내달 데뷔

걸그룹 크레용팝의 동생 걸그룹 단발머리(사진)가 출격한다.

21일 크롬엔터테인먼트는 단발머리의 사진을 공개하며 "크레용팝에 이어 크롬엔터테인먼트의 두 번째 걸그룹 '단발머리'가 6월 중 가요계에 정식 데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발머리는 다혜·유정·지나·단비로 구성된 4인조 걸그룹. 눈에 띄는 비주얼은 물론 수준급의 보컬 실력과 댄스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팀명 그대로 멤버 모두 단발머리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소속사 관계자는 팀명을 단발머리로 정한 이유를 "일반적으로 여성이 긴 머리를 단발로 싹둑 자르면 외모의 변신은 물론 심적인 변화도 있다고 생각하듯이 단발머리는 단순히 헤어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변신과 변화'를 상징한다"고 했다. 그는 또 "다양한 변신과 변화를 통해 독특한 개성과 고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단발머리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했다.

단발머리의 타이틀곡은 은종태가 맡았다.

은종태는 EA의 '영웅서기 온라인' '레전드 오브 마스터' 등 유명 게임의 음악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은종태는 윤미래가 불러 지난해 히트곡 중 하나 드라마 '주군의 태양' OST인 '터치 러브'와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꽃보다 남자' OST)'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했다.

/양성운기자 ysw@

HOT PHOTO

발리의 여신 손담비 손담비가 발리 해변을 배경으로 '섹시 퀸'의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패션지 '인스타일' 6월호 화보 촬영에서 그는 매혹적인 메이크업과 구릿빛 탄력 있는 피부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보 촬영에 함께 했던 관계자는 "보정이 필요 없는 완벽한 몸매"라며 극찬했다. /유순호기자

박유천, 거미 새 앨범에 피처링

거미의 새 앨범에 박유천(사진)의 목소리가 담겼다.

박유천은 다음달 9일 발매되는 거미의 새 미니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멜로디가 포인트인 레게 스타일의 곡에 목소리를 더했다. 애초 이 곡에 남자친구 역할의 내레이션을 맡기로 했던 박유천은 녹음 현장에서 노래를 듣고 작업하던 중 즉석에서 피처링 작업까지 하게 됐다.

거미와 처음 작업을 한 박유천은 "평소 편안하고 서정적인 분위기의 인디 음악을 즐겨 듣는데 이번 피처링에 참여한 곡 역시 그런 느낌의 곡"이라며 "나들이 가고 싶게 하는 밝은 곡이라 신나게 녹음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유천은 JYJ 다른 멤버들과 달리 팀 활동 외에는 연기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번 앨범에서 오랜 만에 들려줄 음악이 팬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4년 만에 발매되는 거미의 새 앨범에는 휘성과 화요비의 자작곡이 실릴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여기에 박유천의 피처링 소식까지 더해지며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잔잔한 전개 속 강렬한 힘

칸 초청작… 섬세한 연출·연기 돋보여

film review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도희야

22일 개봉한 '도희야'는 잔잔한 전개 속에서 강렬한 힘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줄거리는 말못할 사건으로 바닷가 마을에 좌천돼 내려온 파출소장 영남(배두나)이 학교에선 왕따를 당하고 집에선 의붓아버지 용하(송새벽)의 폭행에 시달리는 14세 소녀 도희(김새론)와 만나 벌어지는 일이다.

대강의 줄거리만 놓고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인다. 화려한 영상이나 폭발적인 감정도 없고 배우들의 대사도 많지 않다. 영화는 배경이 된 외딴 바닷가 마을처럼 조용하다.

그러나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은 예사롭지 않다. 사회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소외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과정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펼쳐져 깊은 울림을 준다.

'도희야'는 정주리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이다. 바닷가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연출력이 돋보인다. 정 감독은 여성 감독 특유의 섬세한 감성으로 말하고자하는 바를 깊이 있게 담아냈다.

무엇보다 배우들의 열연이 영화의 완성도를 한껏 높였다. 배두나는 정적인 캐릭터를 섬세한 눈빛과 표정 연기로 표현하며 두 시간의 영화를 이끌어가는 내공을 보여줬다. 김새론은 어린 나이에 좀처럼 해내기 어려운 배역을 다양한 감정으로 소화해 배우로서 한 뼘 더 성장했음을 증명했다. 그동안 코믹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긴 송새벽의 입체적인 악역 변신도 흠 잡을 데 없다.

결론을 말하면 제67회 칸 영화제의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수작이다.

'해적' 칸 마켓서 15개국 선 판매

해외 바이어 "오락·대중성 갖췄다"

김남길·손예진 주연의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이 제67회 칸 영화제 마켓에서 15개국에 선 판매됐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21일 "올 여름 개봉 예정인 '해적'이 미국·캐나다(북미 지역)을 비롯해 일본·독일·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폴란드·대만·태국·인도·남미·미얀마 등에 판매됐다"면서 "올해 해외에 판매된 한국 사극 영화 중 가장 많은 국가에 선 판매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적'은 조선 건국 보름 전 고래의 습격을 받아 국새가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찾는 해적과 산적, 그리고 개국 세력간의 대격전을 그린 초대형 액션 어드벤처물이다.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문 티저 트레일러를 통해 작품을 확인한 해외 바이어들은 "짧은 영상임에도 완벽한 컴퓨터그래픽(CG) 품질과 규모감, 화려한 액션신이 영화에 대한 큰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칸 마켓에서 본 여러 한국 사극 블록버스터 중 가장 오락적이고 대중에게 어필할 만한 영화"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칸 영화제 기간에 발행되는 영화 전문지 스크린 데일리 인터내셔널에 소개된 손예진의 '해적' 캐릭터 포스터도 화제를 낳았다. 해적단 두목 여월 역을 맡아 고난이도 액션에 도전한 손예진은 이 포스터에서 해적 복장을 한 채 장검을 들고 강렬한 인상을 뿜어냈다. /탁진현기자

15개국에 선 판매된 '해적' 손예진 캐릭터 포스터.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아바걸스 서울·부산서 공연

그룹 아바(사진)의 헌정밴드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영국의 아바걸스가 국내에서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아바걸스는 아바의 국제무대 데뷔 40주년을 맞아 30~31일 강동아트센터에서 내한공연을 개최한다. 헌정밴드는 특정 뮤지션의 음악과 스타일 등을 재현하는 밴드로, 1990년대 후반부터 활동해온 아바걸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헌정밴드다.

이날 공연에서 이들은 '맘마미아' '허니허니' '아이 해브 어 드림' 등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아바의 히트곡 20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제작사 허리케인INC는 "아바걸스 밴드 멤버들은 세월호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조의를 표한다. 공연에서 추모의 의미로 '더 웨이 올드 프렌즈 두'를 들려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바걸스는 서울 공연에 앞서 28일 부산 KBS홀에서 공연한다.

/유순호기자 suno@

신민아 "복귀 고민 많았다"

5년 만에 영화 '경주'… 박해일과 4년 만에 재회

영화 '경주'로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신민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을 내비쳤다.

21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경주'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신민아는 "오랜 만에 영화에 복귀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기존에 보이지 않은 모습을 내비치고 싶은 욕심이 컸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이번 영화를 연출한 장률 감독의 전작 '두만강'을 유심히 봤다.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감정이 전해지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경주'에 출연한 이유를 설명했다.

2010년 영화 '10억' 이후 4년 만에 신민아와 재회한 박해일은 "신민아가 20대 때와는 다른 30대 여배우의 성숙미를 잘 보여줬다. 나만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칭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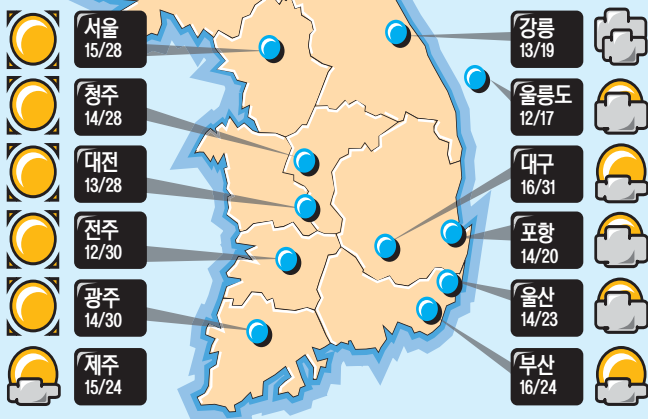
또 "장률 감독의 영화 '이리'에서 주연을 맡았던 윤진서씨와 친분이 있다"면서 "그에게 '경주'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참여하게 됐다"고 윤진서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경주'는 7년 전 춘화를 찾는 수상한 남자 최현(박해일)과 찻집 주인인 공윤희(신민아)의 설레는 만남을 경주를 배경으로 그린다. 다음달 12일 개봉. /탁진현기자

21일 영화 '경주' 제작보고회 참석한 신민아(왼쪽), 박해일. /연합뉴스

날씨

5/22 木 일출시각 05:18 일몰시각 19:4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지금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날씨에는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하고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8	2	6	
			7			5		3
					2		9	4
	9			6	4	7		
2								6
		3	1	2			8	
3	1		2					
5		7			1			
	2	6	8	4				

			2		5		4	
4					6	9		
	1				9			2
3						1	2	6
2	8						5	9
6	5	1						3
1			4				6	
		4	8					7
	9		6		7			

스도쿠 정답

1	3	9	4	5	8	2	6	7
4	8	2	7	9	6	5	1	3
7	6	5	3	1	2	8	9	4
8	9	1	5	6	4	7	3	2
2	7	4	9	8	3	1	5	6
6	5	3	1	2	7	4	8	9
3	1	8	2	7	9	6	4	5
5	4	7	6	3	1	9	2	8
9	2	6	8	4	5	3	7	1

9	3	6	2	8	5	7	4	1
4	2	8	7	1	6	9	3	5
7	1	5	3	4	9	6	8	2
3	4	9	5	7	8	1	2	6
2	8	7	1	6	3	4	5	9
6	5	1	9	2	4	8	7	3
1	7	3	4	9	2	5	6	8
5	6	4	8	3	1	2	9	7
8	9	2	6	5	7	3	1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돼지족발이 특별한 이유…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돼지족발은 이슬람 문화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즐겨 먹는다. 우리는 물론 중국에도 다양한 돼지족발 요리가 있고 태국도 카오카무라는 족발덮밥이 유명하다. 유럽도 마찬가지여서 독일에는 구운 족발 학세와 맥주에 삶은 아이스바인이 있다. 프랑스는 달콤한 족발 조림, 피에 드 코숑이 인기고 이탈리아에는 잠포네가 있다.

대부분 나라는 족발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먹는다. 이탈리아는 새해에 잠포네를 먹으면 일 년 내내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중국 당나라 때는 과거 보러 가는 선비가 족발을 먹으며 장원급제의 소원을 빌었고 우리 역시 산후 조리로 족발을 먹으면 산모의 젖이 잘 나온다고 말한다.

족발에 왜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담았을까? 네발로 걷는 동물은 발바닥에 정기가 몰리는데 특히 돼지는 짧은 다리로 육중한 몸을 버티고 서 있으니 족발이 그만큼 튼튼하고 강하며 몸에도 좋다고 여겼다. 옛날, 좋은 음식이 생기면 먼저 하늘에 제사부터 지냈으니 족발도 예외가 아니다. 돼지족발과 한 잔 술이라는 뜻의 돈제우주(豚蹄盂酒)의 고사가 그것이다.

춘추전국시대에 초나라 대군이 제나라를 침범했다. 놀란 제왕이 이웃 조나라에 원군을 요청하며 예물로 황금 100근과 마차 10대를 준비했다. 이를 본 재상 순우곤이 웃다가 갓끈이 끊어졌는데 왕이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아침에 어떤 백성이 돼지족발 하나와 술 한 잔을 제단에 올려놓고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보았는데, 풍년을 기원하고 자녀의 출세와 부부 백년해로를 빌면서 제물로 달랑 돼지족발 하나를 놓았으면서 원하는 것은 너무 많았던 것이 떠올라 웃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왕이 황급히 예물을 늘려 황금 1000근과 마차 100대를 보내 원군을 청했다. 조나라에서 정병 10만과 전차 1,000대를 파견하니 소식을 들은 초나라가 서둘러 군사를 물렸다. 사기 골계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공시족인데 결혼 운은 어떤지 직장생활 준비하면 인연 생겨

마법비비 여자 86년 5월 9일 음력 밤12시 넘어서.

Q 86년5월생 여자 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한적이 없는데, 주위 친구들과 지인들은 한두 명씩 결혼을 하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 운이 궁금하고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게 관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여자에게 배우자운과 관운은 같은 오행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상관관계가 있어서 동시에 작용을 하며 관운이나 직장 운이 좋을 때는 이성이나 배우자운도 좋게 나타납니다.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생겨난 말이 아니고 누대를 걸쳐 나타난 실증된 말인데 운에 맡기지 말고 노력으로 극복하라고 하는 말로 의욕을 돋우기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즉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니 공무원도 좋겠으나 2015년 까지 결혼을 계획하여 직장을 알아본다면 눈높이에 맞는 곳을 다니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시험 준비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영업 남친 부모가 반대해요 초반 결혼생활 순탄치 못할듯

으다기 여자 83년 1월 5일 양력 16시 30분
남자 83년 3월 14일 양력 자정~12:30

Q 선생님께서 저번에 올해는 결혼 운이 없고 내년에 있다고 하셔서 기대를 해봅니다.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장사(유흥업)를 하는데.. 업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바꾸라고 하는 저희 부모님이 야속하기만 하고 힘듭니다.

A 상대남자는 신용이 있고 근면하여 어려운 일도 반드시 극복해 내는 남다른 끈기는 있습니다. 인상은 다소 냉정히 보이기도 할 것이며 '소의 뿔'과 같아 우직하고 사주상 처자유덕(妻子有德)하나 모처불합(母妻不合)하여 살면서 배우자의 갈등이 염려 됩니다. 이유인즉 결혼을 하면 몇 년간 남자는 운이 하향 길을 걷게 되어 사업이나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초반에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하여 고통이 따릅니다. 이 문제를 두 분은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이란 것이 두 분만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나 주변분들 의견을 배재 할 수 없음을 알고 2014년 음력 12월까지는 기다려본 후 결정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22일 (음 4월 24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공짜는 없다는 말 명심~. **60년생**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격이다. **72년생** 막힌 일에 마땅한 해답이 없어 답답~. **84년생** 이름을 널리 알릴 경사가 생긴다.

49년생 어려움이 끝나고 희소식 있다. **61년생** 한턱 쏘더라도 예산은 초과하지 말라. **73년생** 서두르면 깨진 독에 물을 붓는다. **85년생** 노력 없이 결과 없음을 명심~.

50년생 좋은 일이 있으니 기대하라. **62년생** 새로 맡은 업무는 탄력이 붙는다. **74년생** 부부간 생각이 달라 피곤한 하루~. **86년생**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이롭다.

51년생 슬하에 근심이 생긴다. **63년생** 투자한 곳에서 흑자가 생겨 야호~. **75년생** 쇼크 받은 일은 서서히 안정된다. **87년생** 삐뚤어진 세상에 돌을 던지고 싶은 심정~.

52년생 운전으로 인한 말썽 조심~. **64년생** 상상도 못했던 즐거움이 있다. **76년생** 동료와 갈등은 벼락치기로 해결하려는 생각 버려라. **88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53년생 부부가 이심전심이니 즐겁다. **65년생** 뿔난 배우자는 건드리지 말라. **77년생** 과감한 조치는 좋은 결실 맺는다. **89년생** 말도 못 꺼낸 고민에 우울한 하루~.

42년생 외출 땐 문단속 잘 할 것. **54년생** 손상된 이미지는 좋아진다. **66년생** 자신이 없는 일은 섣불리 나서지 말라. **78년생** 직장인은 조직의 주역 발판 마련한다.

43년생 이웃과 즐거운 시간 보낸다. **55년생** 변수가 있어도 일관성 유지할 것. **67년생** 동료와 차이를 인정하면 매사 잘 풀린다. **79년생** 내부의 적을 잘 살펴라.

44년생 대접받으려면 말을 아껴라. **56년생** 외출하면 입이 즐겁다. **68년생** 한물간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80년생** 우연히 필이 꽂히는 이성과 마주 앉는다.

45년생 매매관계는 희소식 있다. **57년생**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은 격~. **69년생** 분수를 모르면 명예와 실리 모두 잃는다. **81년생** 지성이면 감천이니 최선을 다하라.

46년생 사람 소개는 신중할 것. **58년생** 조직의 곪은 문제는 터지는 게 이롭다. **70년생** 변수가 많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82년생** 친구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47년생 돈 너무 아끼면 망신당한다. **59년생** 가족이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 **71년생** 짝수와 푸른색이 행운을 부른다. **83년생** 일이 뜻대로 안 풀려 왕짜증~.

잦은 오심 얼룩진 프로야구

선수·팬 불만 넘어 분노 폭발 비디오 판독 확대 요구 높아

프로야구 오심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수들은 물론 야구팬들도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2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과 한화의 경기에서는 4회말 넥센 박헌도의 희생플라이로 넥센이 득점한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 중계의 느린 화면으로 보면 한화 포수 정범모가 송구를 받아 넥센 3루 주자 김민성이 홈을 밟는 것을 가로막았지만 주심은 세이프을 선언했다. 같은 날 광주에서 열린 KIA와 LG의 경기에서도 아웃과 세이프가 리플레이에서 보인 것과 반대로 판정되는 사례가 나와 심판 판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20일 오후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넥센과 한화 경기. 4회말 무사 1, 3루 넥센 박헌도의 희생플라이 때 3루 주자 김민성과 포수 정범모의 접전 상황에 대해 이영재 구심이 세이프를 선언하자 포수 정범모 등 선수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에서 판정이 구설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이 여러 차례 나와 각 구단 감독들이 항의하거나 허탈해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다시 올 시즌 초부터 판정이 이슈가 되면서 오심이 나올 때마다 예전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 KIA-SK전에서는 심판이 경기 도중 질병을 사유로 교체되는 흔치 않은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한 30대 남성 관중이 그라운드에 난입해 박근영 1루심을 공격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최근 들어 숨은 일꾼이 돼야 할 '그라운드의 판관'들이 화제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잦다.

논란은 '비디오 판독 확대'로 귀결되곤 한다.

마침 미국 메이저리그가 올해부터 국한하던 비디오 판독을 아웃·세이프 등 여러 분야로 확대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추세를 따르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장 오심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각 구단 사령탑들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결국 비디오 판독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내놓고 있다.

오심으로 얼룩진 프로야구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어떤 해법으로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홍명보호' 지옥훈련 돌입

휴식 끝…약점 지목된 세트피스 강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본격 담금질에 들어간다.

지난 12일 처음 소집된 홍명보호는 K리거 6명과 부상 등으로 미리 귀국한 해외파 3명 등 9명의 선수로 첫 훈련을 시작했다.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 4인방이 가세하면서 점차 팀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갔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활약 중인 아시아리거들도 휴가기간 대부분 귀국했다. 21일 오전 김진수가 입국하면서 홍명보호 최종엔트리 23인 가운데 윤석영을 제외한 22명 모두 대표팀에 합류했다.

윤석영은 소속팀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오는 24일 더비카운티와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치를 예정이라 그 경기를 치르고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홍명보호는 소집된 이후 6일 동안 컨디션 회복과 부상 재활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해왔다. 훈련이라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운 각종 훈련으로 선수들끼리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18일부터 20일까지 선수들에게 2박3일의 달콤한 휴가를 선물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지옥훈련이 시작됐다. 홍 감독은 지난 15일 "다음 주부터는 경기 형태의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며 실전 분위기에 섬금 다가선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홍명보호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세트피스 대비 훈련도 곁들일 계획이다. 그 어떤 훈련보다 선수들 간의 '합'이 중요한 세트피스이기에 결코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게 홍 감독의 생각이다.

홍 감독은 "세트피스는 한국이 골을 가장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지난 평가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세트피스 준비는 공격과 수비를 가리지 않고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성운기자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15일 오후 파주 NFC(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훈련에 앞서 선수들에게 훈련 지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은 경기로 성원에 보답"

박지성 고별전 아름다운 마무리 각오

박지성(33)이 아름다운 이별을 예고했다.

한국 팬 앞에서 고별 무대를 앞두고 있는 박지성은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PSV 에인트호번 코리안투어 기자회견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다"며 농담을 던지면서도 "현역 마지막인 만큼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진지하게 각오를 전했다.

22일 수원 삼성, 24일 경남FC와 차례대로 경기하는 박지성은 "현역으로서 국내 팬에게 보여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상당히 기대된다. 잘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빡빡한 경기 일정 탓에 풀타임 출전은 힘들지만 45분 정도는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브라질 월드컵에 나설 후배들을 향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2002년 월드컵 당시엔 내가 막내여서 선배들이 팀을 이끌면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됐다"며 "반면 이번 월드컵에는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가 많이 없어서 선수들 각자 책임감을 느끼고 팀과 동료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에르네스트 파버르 에인트호번 코치는 "박지성과 함께 선수로 뛰었던 게 영광이고 박지성을 지도한 것도 값진 경험이었다. 박지성은 대단한 선수고 모든 것을 불태운 에너지 넘치는 선수였다"고 칭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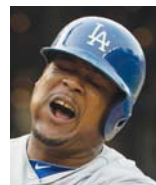
이어 "박지성이 은퇴하는 건 에인트호번으로선 슬픈 일"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순호기자 suno@

박지성이 21일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필립스 스포츠 클럽 PSV 아인트호벤 창단 100주년 기념 행사 및 팬미팅'에서 크로스바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절친' 우리베 없이 복귀전

햄스트링 결장 가능성

류현진(27·로스엔젤레스 다저스)이 24일 만의 복귀전에서 '절친' 후안 우리베(35·사진)의든든한 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우리베는 21일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방문경기에서 7번 3루수로 선발 출장해 9회초 2루타를 친 후 주루 과정에서 오른쪽 햄스트링에 이상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우리베는 경기 뒤 인터뷰에서 지난번 부상보다 정도가 심하다고 전했다. 당시 부상으로 5일 쉰 우리베는 이번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 건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현지 언론은 우리베가 부상자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어깨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22일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 등판하는 류현진은 주전 3루수이자 심적 안정을 주는 절친한 동료 없이 복귀전을 치러야할 상황에 놓였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21일

■ 포항

팀	1-3	4-6	7-9	계
롯데	102	010	100	5
삼성	100	230	01X	7

△승 = 배영수(3승 2패) △세 = 임창용(2승 8세이브) △패 = 장원준(5승 1패) △홈런 = 이승엽 5·6호(4회1점, 5회3점) 이지영 1호(4회1점·이상 삼성)

■ 목동

팀	1-3	4-6	7-9	계
한화	010	111	005	9
넥센	000	111	103	7

△승 = 윤규진(2승 2세이브) △세 = 정대훈(1세이브) △패 = 마정길(2승 3패) △홈런 = 이택근 7호(4회1점·넥센) 정범모 1호(9회1점) 김태균 2호(9회4점·이상 한화)

■ 광주

팀	1-3	4-6	7-9	계
LG	100	000	300	4
KIA	000	000	000	0

△승 = 우규민(3승 2패) △패 = 양현종(4승 3패) △홈런 = 정의윤 3호(7회2점·이상 LG)

■ 마산

팀	1-3	4-6	7-9	계
SK	421	002	010	10
NC	010	001	000	2

△승 = 레이예스(2승 4패) △패 = 이재학(4승 4패) △홈런 = 박정권 5호(3회1점) 스캇 5호(6회1점·이상 SK)